

# 조선후기 開城의 儒學 전통\*

노 관 범\*\*

1. 머리말
2. 개성 유학사의 단락
  - 1) 개성 유학사의 두 극점
  - 2) 19세기 院宇 入享 인물들의 분석
3. 개성 유학 전통의 실제
  - 1) 儒風의 형성과 洛學의 유입
  - 2) 易學·經學·禮學·理學의 전개
  - 3) 文學의 번영과 지역 전통의 집성
4. 맺음말

## 1. 머리말

조선시대 지성사 분야에서 지역 단위의 연구, 지역성(locality)을 중시하는 연구는 아직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한 듯하다. 대개의 경우 지역은 개인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는 인물사 연구의 배경적 지식으로 활용되고 있고, 개인의 학문을 넘어 집단의 학풍을 논하는 경우에도 주된 연구 관심은 지역보다는 학파나 당색에 놓여 있다. 물론 학파나 당색이 지역과 밀착해 존재할 수도 있고 지

\* 이 연구는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01).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조교수.

역적으로 설명될 수도 있겠으나 연구 대상을 학파나 당색으로 설정하는 것과 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일이다. 그럼에도 학파나 당색 단위 지성사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지역을 중시했던 일련의 연구들은 지역 지성사를 수립하기 위한 유익한 시점을 제공해 준다.

이를테면 조선시대 성리학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 방식은 기호학파와 영남학파의 대별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기호학파와 영남학파 각각의 내부에서 지역적인 접근이 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기호학파의 경우 기호학파 안에 포함되어 이해되어 왔던 호남 성리학의 지역적 독자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sup>1)</sup> 영남학파의 경우 江左의 퇴계학과 江右의 남명학이라는 이분법적 이해 방식을 탈피하여 강좌와 강우의 중간 지역의 학풍을 독자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sup>2)</sup> 그 밖에 성리학의 중심지에서 벗어난 지역들, 곧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의 유림 연구도 조선 유학사의 지역적 이해에 보탬이 된다.<sup>3)</sup>

조선시대 영남과 기호라는 유학사적 지역성이 실상 퇴계학과 율곡학이라는 조선 성리학의 서로 다른 유형으로부터 포착되어 왔고 주로 한국 철학계의 기본 프레임이었다면, 한국 역사학계에서 주목해 온 사상사적 지역성은 京과 鄕의 이원성의 문제로 수렴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상사적 지역성으로서 경과 향은 달리 말하면 각각 탈성리학적 지역성과 성리학적 지역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특히 이

- 1) 오종일, 2004 『호남 유학사상의 특징』, 『동양철학연구』 36, 동양철학연구회; 박학래, 2006 『19세기 湖南 性理學의 전개와 특징』, 『국학연구』 9, 한국국학진흥원; 고영진, 2007 『호남 사람의 학맥과 학풍』, 혜안.
- 2) 琴章泰, 2000 『퇴계학과와 理學의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종석, 2004 『한말 영남 유학계의 동향과 지역별 특징』, 『국학연구』 4, 한국국학진흥원; 정우락, 2008 『江岸學과 高靈 儒學에 대한 試論』, 『退溪學과 韓國文化』 4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노관범, 2008 『청년기 張志淵의 학문 배경과 博學風』, 『朝鮮時代史學報』 47, 조선시대사학회; 홍원식, 2010 『영남 유학과 '洛中學』, 『한국학논집』 4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정우락, 2012 『성주지역 道學의 착근과 江岸學派의 성장』, 『嶺南學』 2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영남에서 강좌와 강우의 중간 지대인 강변 지방은 퇴계학을 따르면서도 독자성이 강하게 발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금장태), 이후 시론적으로 강안학(정우락)·낙중학(홍원식)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 3) 李光麟, 1989 『舊韓末 關西地方 儒學者의 思想的 轉回』, 『開化派와 開化思想 研究』, 一潮閣; 丁海得, 1998 『朝鮮時代 關北 儒林의 形成과 動向』, 『京畿史學』 2, 京畿史學會.

러한 방식으로 사상사적 지역성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18세기 이후 조선 사상계의 문제적인 지역성의 형성을 京·鄕 分岐에서 구하고 京華의 지역성을 특화하여 북학을 중심으로 경화학계의 탈성리학적 학풍을 설명한 연구였다.<sup>4)</sup> 이후 경 또는 경화라고 하는 탈성리학적 지역성의 창출은 조선후기 실학을 서울 또는 경기라는 지역적 각도에서 접근하는 인식의 강화를 초래하였고, 지나친 서울 중심적인 사상사 연구 경향에 대한 반성에서 경·향 분기의 프레임을 공유한 가운데 18세기 영남과 호남의 학맥과 학풍에 접근한 연구도 나왔다.<sup>5)</sup>

이처럼 조선시대 지성사에서 지역적 접근은 주로 조선 성리학의 양대 학파를 각각 지역적으로 세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었거나 조선 사상계에서 성리학과 실학의 분기를 조선 사회의 경·향 분기라는 사회구조적 추세에 대입시켜 지역적으로 이해하려는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방식의 연구는 조선의 학파와 학풍을 유학사적 맥락에서 또는 사상사적 맥락에서 지역적으로 정치하게 이해하도록 인도하는 미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연구 대상으로 문제적 지역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성에 대한 관심이 엄밀한 의미에서 지역사의 맥락에서 도출된다기보다 유학사 내지 사상사의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유학사적 또는 사상사적 지역성과 지역사적 지역성의 상호 관계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은 아직 부족한 편이며<sup>6)</sup> 대개의 경우 유

4) 유봉학, 1995 『燕巖一派 北學思想 研究』, 일지사; 유봉학, 1998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5) 조성산, 2006 『18세기 영·호남 유학의 학맥과 학풍』 『국학연구』 9, 한국국학진흥원.

6) 영국 레스터 학파의 견해를 중심으로 지방사는 크게 好古趣味 지방사(amateur antiquarianism), 擬似 지방사(pseudo-local history), 正統 지방사(academic local history)로 분별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고취미 지방사란 17세기 젠트리 지방사관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문헌 중심으로 잡다한 인물과 사건을 나열하는 아마추어 역사를 가리키고, 의사 지방사란 지방사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적 차원에서 지방사를 국사의 일부나 보조로 간주하는 '지방화된 전국사(national history localized)'를 가리키고, 정통 지방사란 지방을 그 자체로 연구될 가치를 지닌 사회적 실체로 보는 '본래의 지방사(local history per se)'를 가리킨다(吳主煥, 1986 『地方史 研究: 그 理論과 實際-英國을 중심으로-』 『大邱史學』 30, 대구사학회, 45-51면). 한국 유학사 또는 사상사 분야에서 시도된 지역적 접근이 '호고취미 지방사'나 '의사 지방사'를 완전히 벗어난 위치에 있는지, 또 '지방화된 전국사'를 지향하고 있는지 '본래의 지방사'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논의가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듯하다. 다만 한국성리학과 지방학의 관계에 있어서

학사나 사상사에서의 지역적 관심은 일개 군현 단위를 훨씬 넘어서는 광역에 머물러 있다.

이에 이 글은 종래 조선시대 지성사에서 추구된 지역적 접근을 강화하여 지역 지성사의 가능성을 시론한다는 계획으로 조선후기 개성의 유학 전통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조선후기 개성에 대해서는 일찍이 張志淵의 『朝鮮儒教淵源』에서 조선후기 지방학계의 성장과 관련하여 개성 유학을 별도로 소개하고 있을 정도로<sup>7)</sup> 유학사적 지역성이 현저했던 곳이라 생각된다. 또한 개성은 사상사적 견지에서 徐敬德이라고 하는 이색적인 도학자, 崔漢綺라고 하는 문제적인 실학자를 배출한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아울러 조선후기 개성상인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sup>8)</sup> 상업도시로서 개성의 역사적 지역성을 돌아볼 계기가 마련되었고, 실제로 일제식민지시기 형성된 개성의 지역성에서 민족 자본의 모더니티를 투시한 연구도 있다.<sup>9)</sup>

그래서인 듯 이제까지 조선시대 개성의 지역성을 통찰했던 일련의 지성사 연구들은 주로 실학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開京學’을 설파하거나<sup>10)</sup> 서경덕의 화담학파에서 발현되는 개방적이고 절충적인 학풍을 강조하거나<sup>11)</sup> 崔漢綺와 金澤榮 같은 개성 지식인의 사상적 맥락으로서 북학을 중시하거나<sup>12)</sup> 徐命膺의 상수

---

다양한 지방사 연구방법을 조선시대 성리학파 연구에 적용할 수 있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권연웅, 2005 『한국성리학의 지방학적 성격』, 『국학연구』 7, 한국국학진흥원).

7) 張志淵, 『朝鮮儒教淵源』 권1(亞細亞文化社 영인본, 130면).

8) 강만길, 1972 『開城商人 研究』, 『韓國史研究』 8, 한국사연구회; 고동환, 2001 『조선시대 개성과 개성상인』, 『역사비평』 54, 역사비평사; 양정필, 2002 『19세기 開城商人의 資本轉換과 蔘業資本의 成長』, 『學林』 23,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고동환, 2009 『조선후기 開城의 도시구조와 상업』, 『지방사와 지방문화』 12-1, 역사문화학회; 양정필, 2012 『근대 개성상인의 상업적 전통과 자본축적』,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 정중현, 2010 『일본제국기 ‘開城’의 지역성과 (탈)식민의 문화기획』, 『동방학지』 15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0) 원유한·박재희, 2001 『“開京學”의 成立 및 實學과 連繫』, 『실학사상연구』 21, 무악실학회.

11) 申炳周, 2005 『화담학과 근기사림의 사상』, 『국학연구』 7, 한국국학진흥원.

12) 유봉학, 1994 『朝鮮後期 開城知識人の 동향과 北學思想 수용』, 『奎章閣』 16, 서울대학교 규장각.

학의 학문적 연원으로 개성의 학풍을 주목했는데,<sup>13)</sup> 공통적으로 개성의 상업도시적 성격과 실학의 발흥이라는 사상사적 문맥의 연결 관계를 통찰하는 다양한 입론이었다고 보인다. 이는 거시적으로 조선시대 유교 사회에서 개성이라는 지역이 상업 도시로서 담당했던 역사적 지역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논점으로 보인다.<sup>14)</sup>

그러나 조선시대 개성의 상업도시적 활력이 실학의 발흥과 연결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실증한 연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만약 그러한 입론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특히 조선후기 개성 지역의 상당수 지식인들이 실학적 성격을 갖추고 있었거나 실학적 지향성을 보이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후술하겠지만 지역 지성사의 관점에서 볼 때 18세기 이후 개성 지역의 지성사적 상황은 실학의 발흥이라기보다 성리학의 증흥에 가까웠다. 개성 사회는 洛學이 유입되면서 비로소 성리학이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19세기 이후 지역 유교 전통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유교 전통의 후발 주자로서 개성 사회는 근대전환기의 사회 변화에 조응하여 유교 전통이 제고되고 있었다.<sup>15)</sup> 조선후기 개성 사회의 역사적 지역성은 무엇보다 지역 사회의 집합적인 인물들이 공유했던 집단적인 추세로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에 이 글에서는 조선후기 개성 지역 지성사의 전체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개성 유학사의 단락과 개성 유학 전통의 실제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1장에서는 개성의 유학 전통을 탐구하기 위한 예비적 고찰로서 개성 유학사의 단락을 검토할 것이다. 개성인으로서 김택영과 그 문인 王性淳이 피력한 개성 유학

13) 曹蒼錄, 2004 『조선조 開城의 학풍과 徐命膺 家の 학문』 『大東文化研究』 4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4) 이와 관련하여 조선전기부터 성장한 개성의 실학지향적 사회사조가 조선후기 실학의 성장, 발전을 선도하거나 촉진하였을 것이라는 견해가 주목된다(원유한, 2000 『實學 搖籃으로서 開城의 位置』 『忠北史學』 11·12, 충북대학교 사학회).

15) 이와 관련하여 대한제국기에 조선 태조의 어진을 봉안한 穆淸殿이 중건되어 개성이 조선 御鄕의 위상을 회복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한희숙, 2013 『조선시대 개성의 穆淸殿과 그 인식』 『역사와 담론』 65, 호서사학회). 이는 근대전환기 개성의 유교적 지역성을 독해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리라 생각된다. 한편 조선 초기 개성의 지역성으로는 舊都, 御鄕, 使臣 경유지, 상업도시의 4가지가 거론되고 있다(한희숙, 2011 『조선 초기 개성의 위상과 기능』 『역사와현실』 79, 한국역사연구회).

사의 두 극점을 살펴보고, 개성에 건립된 院宇 入享 인물들의 분석을 통해 개성 유학사의 거시적인 시기 구분을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2장에서는 조선후기 개성 유학 전통의 실제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개성에 유교적 가풍이 형성되고 洛學이 유입되는 양상, 전통적인 易學과 더불어 새롭게 經學, 禮學, 理學 등이 전개되는 양상, 文學이 번영하면서 지역 전통이 집성되는 양상을 제시할 것이다. 이 글은 지역 지성사의 견지에서 조선후기 개성 사회의 역사성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했지만 아직은 조선후기 개성의 유학 전통을 복원하려는 시도에서 머무르고 있으며 조선후기 개성에서 새롭게 발흥한 성리학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판단은 유보되고 있다. 조선후기 개성의 유학 전통은 20세기 전반 개성 지역의 사회문화운동 연구와 연결시킴으로써 역사적 인과관계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이 글의 2장 3절에서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김택영 및 김택영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결집했던 개성 문인들,<sup>16)</sup> 그리고 그들의 지역 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는 별고를 기약한다.

## 2. 개성 유학사의 단락

### 1) 개성 유학사의 두 극점

1917년 『每日申報』에 연재된 張志淵의 『朝鮮儒教淵源』은 학술사적인 견지에서 한국 유학사를 서술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유학사이다. 이 작품이 비록 한국 유학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이론적인 지평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인물과 작품 중심으로 한국 유학의 흐름을 개관하되 중앙학계는 물론 지방학계까지 폭넓게 접근하는 미덕을 발휘하였다. 특히, 關西 지방이나 關北 지방처럼 상대적으로 조선시대 유교 전통의 주변적인 지역에서 형성된 유학사에 대해서도 서술을 아끼지 않았다.

16)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김택영의 문헌 편간 사업에 참여한 개성 문인들의 전체적인 규모와 특징에 대해서는 盧官汎, 2014 『金澤榮과 개성 문인』 『민족문화』 43, 한국고전번역원 참조.

『조선유교연원』은 조선시대 개성 유학에 대해서 趙有善(蘿山, 1731~1809)과 金憲基(堯泉, 1774~1842)를 소개하였다. 조유선에 대해서는 “徐花潭以後, 最以 經學家推重”이라고 서술하였고,<sup>17)</sup> 김헌기에 대해서는 “學問最高, 世稱花潭後一人”이라고 서술하였다.<sup>18)</sup> 조선시대 개성의 대표적인 유학자를 조유선과 김헌기 두 사람으로 압축하고 두 사람의 학문에 대해 徐敬德(花潭, 1489~1546) 이후 최고의 경학가 또는 심지어 서경덕 이후의 한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비단 『조선유교연원』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1925년 출간된 개성 유학자 梁在淳(眞山, 1833~1909)의 『眞山集』 권수에 있는 문인 崔在道의 서문에서도 역시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옛날 明宗·宣祖 때 개성에 花潭 徐先生이 있었다. 세상에 드문 영특한 자질로 師承을 거치지 않고 홀로 妙道를 깨달아 능히 斯文을 창도하였다. 그 후 백여 년 동안 쓸쓸히 있다가 蘿山 趙先生이 澗湖 문하의 고제가 되어 正學을 창명하니 많은 선비가 울연히 일어났고, 初菴 金先生이 홀로 의발을 전수 받았다. 초암 사후 속학이 날로 치성하고 儒門의 淵源이 점차 사라져 가는데 龍山 姜先生이 遺緒를 계승하여 우뚝 홀로 회복하여 후학을 가르치는 일에 애써서 鄉邦의 탁월한 師範이 되었다. 용산 사후 용산의 도를 자신의 도로 삼고 용산의 학문을 자신의 학문으로 삼아 士林의 모범이 되어 한결같이 용산처럼 한 분이 우리 先師 眞山先生 한 사람뿐이다.<sup>19)</sup>

위의 내용은 양재순의 유학사적 위상을 제시하기 위해 서경덕에서 양재순까지 개성 유학사를 간단히 일별한 것이다. 역시 개성 유학의 주요 계보를 ‘서경덕—조유선—김헌기’로 읽었고 다시 19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개성 유학자로 姜文豹(龍山, 1822~1881)와 양재순을 거론하였다.

17) 張志淵, 『朝鮮儒教淵源』 권2, 「趙有善」.

18) 張志淵, 『朝鮮儒教淵源』 권2, 「金憲基」.

19) 梁在淳, 『眞山集』 「眞山先生文集序」.(崔在道) “在昔明宣之際, 開州有花潭徐先生, 以間世英姿, 不由師承, 獨契道妙, 克昌斯文. 其後寥寥百餘載, 有蘿山趙先生, 以溪門高弟, 倡明正學, 多士蔚興, 而初菴金先生, 獨傳衣鉢. 初翁沒, 俗學日盛, 儒門淵源, 寢以微泯, 惟龍山姜先生, 實承遺緒, 挺然獨復, 眷眷以開牖後學爲事, 卓然爲鄉邦師範. 龍翁沒, 以龍翁之道爲道, 龍翁之學爲學, 以之矜式士林, 一如龍翁者, 惟我先師眞山先生一人而已.”

최재도는 개성 유학이 서경덕과 조유선 사이에 쓸쓸했다고 평했지만 그것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 해석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金澤榮(滄江, 1850~1927)이 편찬한 『崧陽耆舊傳』은 조선시대 개성 지성사라 이를 만든 작품인데, 그 중에서 이 책의 『學行傳』은 조선시대 개성 유학자들의 전기집이다. 여기서 그는 개성 유학자 金時鐸(梨湖, 1713~1751)과 許壇(新湖, 1724~1755)의 전기를 입전하고 다음과 같은 史論을 첨부하였다.<sup>20)</sup>

우리 고을에서 理學을 말한 사람은 徐文康公의 一傳, 再傳 후에는 그쳤다 일어났다 하여 마치 실 가닥이 거의 끊어질 듯하였다. 백 년 사이에 梨湖 金氏와 新湖 許氏가 선창하고 蘿山 趙氏가 화답하고, 연후에 堯泉 金氏가 일어나 윤색하여 冠帶의 무리가 이에 彬彬해지니 源委를 알 수 있다.

김택영은 서경덕 이후 개성 유학사의 주요 계보를 '김시탁·허증—조유선—김헌기'로 읽고 이를 개성 성리학의 원위라고 단언하였다. 여기서 개성 지역에 성리학이 중흥한 기점이 김시탁인지 조유선인지 변별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을 지도 모른다. 김시탁과 허증은 조선후기 洛學의 종장인 李緯(陶菴, 1680~1746)에게 수학하였고 김시탁의 문인 조유선 역시 낙학의 종장인 金元行(漢湖, 1702~1772)에게 수학하였다. 김시탁과 조유선은 약 20년의 나이 차이가 있고 수학한 스승이 이재와 김원행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학문적 입지점을 노론 낙학에 들으므로써 개성 지역의 유학 전통을 조선후기 경화학계에 밀착시킨 주역이었다. 중요한 것은 개성 지역에서 성리학의 중흥을 완결한 인물로서 김헌기의 역사적 위상이다. 김헌기는 조유선의 문인으로 경화학계에 유학함이 없이 스스로 대성한 토착 유학자였다. 김택영은 상기한 『송양기구전』 『학행전』에 김헌기의 전기를 입전하고 다음과 같은 史論을 첨부하였다.<sup>21)</sup>

20)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 〈金時鐸·許壇〉 “吾州言理學者, 自徐文康公一再傳以後, 或寢或起, 垂絕如線, 百年之間, 梨湖金氏新湖許氏唱之, 蘿山趙氏和之, 然後堯泉金氏起而潤色之, 冠帶之倫, 於斯彬彬, 可以知源委焉.”

21)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 〈金憲基先生〉 “本朝理學, 以李文純文成二公爲祖, 而至觀堯泉先生之趣, 則於文成爲尤近. 吾州自徐文康公以後二百年間, 經儒之作, 雖有衰有盛, 而風流樸厚, 未嘗不有可觀焉, 至於光明超卓, 文質彬彬, 其言淵乎可復者, 獨先生有焉.”



本朝 理學은 李文純과 李文成 두 공을 원조로 하는데, 堯泉先生의 취향을 보면 이 문성에 더 가깝다. 우리 고을은 徐文康公 이후 이백 년간 經儒의 일어남에 성쇠가 있었다고는 하나 風流가 厚樸하여 볼 만한 사람이 없었던 적은 없다. 그러나 光明하고 탁월하고 文質이 彬彬하여 그 말을 깊이 되새길 만한 사람은 오직 선생이 있었다. 어찌 성대하지 않은가, 어찌 성대하지 않은가!

장지연이 『조선유교연원』에서 김헌기에 대하여 ‘學問最高, 世稱花潭後一人’이라고 서술한 근거가 장지연이 교유한 김택영의 『승양기구전』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후일 『승양기구전』을 수정한 『重編韓代崧陽耆舊傳』에서 김택영은 김헌기의 학술에 대해 曹兢燮(深齋, 1873~1933)을 인용하여 김헌기의 양명학 비판 논설은 조선은 물론 중국의 理學에서도 유례가 드문 발군의 작품이라고 찬미하였다.<sup>22)</sup>

김택영은 『승양기구전』 「학행전」에 입전한 개성 유학자 중에서 오직 서경덕과 김헌기에 대해서만 ‘先生’의 호칭을 사용하였고, 후일 『증편한대승양기구전』에서는 아예 「학행전」의 시작과 끝을 서경덕과 김헌기로 설정하였다. 개성 유학을 서경덕과 김헌기로 집약하는 김택영의 관점은 김택영의 문인 王性淳(尤雅堂, 1869~1923)에게서도 발견된다. 왕성순은 1915년 徐敬德, 李滉, 李珥, 宋時烈, 金憲基 5인의 문집에서 明理盡性과 관계되는 언설들을 선별하여 『朝鮮五賢文鈔』를 완성하였다. 이 책은 ‘朝鮮五賢’의 글을 천하에 전파하여 천하의 호걸지사가 이를 읽고 性理를 장려하고 功利를 정화하도록 하겠다는 편자의 특별한 목적으로<sup>23)</sup> 중국에서 간행되었다. 서경덕과 김헌기의 이름에서 보듯 중국에 전파할 조선 성리학의 대표자로서 ‘조선오현’에 개성 유학자가 들이나 들어가 있으며, ‘조선오현’의 시작과 끝이 개성 유학자로 설정되어 있음이 이색적이다. 말하자면 서경덕과 김헌기는 비단 개성 유학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조선 성리학의 대표자로 격상되어 있는 것이다.

왕성순은 한국 유학사의 시각에서 ‘조선오현’ 가운데 특별히 서경덕의 역사적

豈不盛哉, 豈不盛哉!”

22) 金澤榮, 『重編韓代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金憲基〉.

23) 王性淳, 『尤雅堂稿』 권3, 「朝鮮五賢文鈔序」.

위상을 강조하였다. 조선 理學은 箕子의 洪範에서 시작하였으나 중간에 失傳되었는데, 고려와 조선의 유자가 단절된 이학을 다시 밝히는 가운데 서경덕에 이르러 비로소 性理說이 시작되었고 서경덕에 이어 이황과 이이에 이르러 성리설이 완비되었다고 단언하였다. ‘서경덕—이황—이이’를 중국 송대의 ‘周邵程朱’에 비견함으로써 조선 성리학의 도통적 지위를 부여하였다.<sup>24)</sup> 개성 유학자 서경덕이 조선 중기 화담학파를 개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식으로 ‘서경덕—이황—이이’라는 계보 위에서 조선 성리학의 대표자로 간주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것은 조선 중기 ‘金宏弼—鄭汝昌—趙光祖—李彥迪—李滉’의 東方五賢 관념이나 조선후기 ‘趙光祖—李滉—李珥—金長生—宋時烈’의 老論五賢 관념과 구별되는 것으로 특히 조광조 대신 서경덕을 부각했다는 특징이 있다.

김택영 역시 『송양기구전』에서 箕子의 洪範 이래 鄭夢周가 理學祖가 되었고 조선조에 들어와 서경덕이 굴기하여 ‘人文之表’가 되었다고 찬양하였으며, 특히

국가가 천명을 받은 지 백여 년이 지나 金宏弼, 趙光祖 제유는 東南에서 창도했고 선생은 西에서 창도했는데, 朴淳·閔純·許曄·李之菡·朴民獻의 무리가 다투어 弟子禮를 잡고 만나 뵈었다.

라고 하여 ‘김굉필—조광조’와 구별되면서도 독자적인 서경덕의 위상을 강조하였다.<sup>25)</sup> 조선 성리학의 본고장인 ‘동남’의 관점에서 본다면 ‘김굉필—조광조’와 같은 동방오현이 조선 성리학의 도통으로 간주되었지만 개성과 같은 ‘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서경덕이 조선 성리학의 도통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상이라 하겠다.

이상으로 조선시대 개성의 유학 전통을 읽는 개성 지식인의 관점을 김택영과 왕성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성 유학은 16세기 서경덕이 화담학파를 개창한 이후 특별히 주목받는 經儒가 등장하지 못하다가 18세기 노론 낙학이 지역적으로 전파되는 가운데 낙학의 종장들에게 수학한 유학자들이 배출되면서 유학

24) 위의 글.

25) 金澤榮, 『崧陽耆舊傳』 「學行傳」 〈徐敬德先生〉 “國家受命百餘年, 金宏弼趙光祖諸儒, 倡道於東南, 先生倡道於西, 一時名流如朴淳閔純許曄李之菡朴民獻之徒, 爭執弟子禮以見.”

전통이 강화되었고 급기야 19세기에 들어와 ‘花潭後一人’으로 평가받는 김헌기가 일어나 개성 유학을 대표하였다. 19세기 후반 김택영은 『송양기구전』을 지어 개성의 유학 전통을 학술적으로 완성하였고 20세기 전반 김택영의 문인 왕성순은 『조선오현문초』를 지어 개성 유학의 대표자 서경덕과 김헌기를 조선 성리학의 시작과 끝으로 승화시켰다. 조선후기 낙학과 연계되어 성장하던 개성 유학은 조선왕조의 쇠망기에 들어와 지역의 고유한 유학 전통으로 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을 넘어 조선 성리학을 구성하는 독자적이고 대표적인 전통으로 부각된 것이다.

## 2) 19세기 院宇 入享 인물들의 분석

앞에서 조선 후기 개성 유학의 지역적 성장과 전통화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조선시대 지역사회에서 유학이 성장하는 과정은 당해 지역의 원우 건립을 통해서 그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이 절에서는 『中京誌』(崔南善 編修, 1915)와 『開城誌』(林鳳植 著作, 1934)를 참조하여 개성 지역 원우 건립에서 간취되는 개성 유학의 사적 전개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원우 건립 현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선시대 개성 지역 원우 일람

	원우	연도		향사		문헌
		창건	사액	주향	배향/병향/추향	
1	崧陽書院	1573년	1575년	鄭夢周	/禹玄寶 徐敬德 金尙憲 金堉 趙翼 (1784년)	(선조)乙亥奉安時致祭文 (숙종)癸酉行幸時致祭文 (영조)庚申行幸時致祭文 (정조)甲辰致祭文 (정조)戊午致祭文 金若魯, 『英祖御筆揭額記』 蔡緯夏, 『講規後敘』 金履度, 『異蹟記』 南公鞞, 『廟庭碑』 (헌종)己亥致祭文 (고종)辛未尊奉時紀實碑銘(李東旭) (고종)壬申遣官致祭文 (순종)己酉大皇帝巡狩時遣官

						致祭文 林圭永, 『崧陽書院重修記』 李明漢, 『講堂重修上樑文』 李景奭, 『祠宇重修上樑文』
2	花谷書院	1609년	1635년	徐敬德	朴淳 閔純 許曄	(숙종) 癸酉行幸時致祭文 (영조) 庚申行幸時致祭文 李恒福, 『從祀文廟議』 趙有善, 『重修記』 金埴, 『祠宇重修上樑文』
3	五冠書院	1682년	1685년	朴尙衷	朴世采	(영조) 庚申行幸時致祭文 趙持謙, 『祠宇上樑文』
4	道山書院	1682년	1685년	李齊賢	李種學 趙錫胤	(숙종) 丙寅致祭文 徐文尙, 『祠宇上樑文』
5	龜岩書院	1674년	1682년	李珥		(숙종) 賜額時致祭文 南公轍, 『祠宇上樑文』
6	崇節祠	1666년	1694년		/ 宋象賢 金練光 劉克良	(숙종) 賜額時致祭文 (영조) 庚申行幸時致祭文 (정조) 癸卯致祭文
7	表節祠	1783년	1783년		/ 林先味 趙義生 孟姓人 / 成思齊(1808년) 朴文壽 (1811년) 閔安富 金冲漢 (1823년)	(정조) 奉安時致祭文 徐有防, 疏 徐命膺, 『高麗遺民傳贊』 徐有防, 『祠宇上樑文』
8	寒泉祠	1807년		朱子	/ 安珦 權溥 李穡 韓修 宋時烈	韓致應, 『事蹟記』
9	四賢別廟	1804년			馬羲慶 韓舜繼 金玄度 李慶昌	趙有善, 『奉安文』
10	崧南祠	1817년			金滉 金漬 金滯 林昌澤 張昌復 / 李春韓(1848년) 金致洪 (1856년)	李賢謙, 『奉安文』 金聲大, 『追享奉安文』 金以政, 『追享奉安文』
11	男山祠	1818년			金履祥 金履度 金斗文 張玄聞	李賢謙, 『奉安文』 金憲基, 『奉安文』 金奎膺, 『奉安文』
12	新湖祠	1818년		許增		馬游, 『奉安文』
13	蘿山祠	1822년		趙有善	趙有憲	洪直弼, 『奉安文』 金奎膺, 『奉安文』
14	堯泉祠	1850년		金憲基		
15	梨湖祠	미상			金時鐸 禹昌洛	
16	龍陰祠	1856년		高敬恒		

\* 출처: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5, 『學校』; 林鳳植 著作, 『開城誌』 권4, 『館學書院』.

조선후기 개성에는 崧陽書院부터 龍陰祠까지 모두 16개의 원우가 건립되었다. 송양서원부터 表節祠까지 16~18세기에 건립된 7개의 원우는 사액을 받았고, 寒泉祠부터 용음사까지 19세기에 건립된 9개의 원우는 사액을 받지 못했다. 먼저 사액을 받은 원우부터 검토하기로 하겠다.

선조대에 건립된 崧陽書院은 鄭夢周를 향사하는 개성 지역 최초의 서원이다. 정몽주는 공민왕대 정치적으로 집결한 신진사대부의 중심인물로 도학과 절의를 인정받아 조선시대에 문묘 종사가 실현되었다. 특히 정몽주는 조선의 유교 이념인 忠을 체현한 인물로 존중 받아 조선후기에는 숙종부터 순종까지 여러 국왕들에 의해 거듭 송양서원에 치제가 내려졌고, 정몽주의 충절을 기리는 영조의 어필이 들어서기까지 하였다. 그랬기에 송양서원은 대원군 집권기 전국적으로 단행된 서원 철폐의 여파에서도 대원군의 정치적 배려 하에 훼손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더욱이 18세기 낙학 산림 金元行이 송양서원의 山長이 되어 송양서원의 講規를 정하고 講會節目을 만들었던 일, 19세기 낙학 산림 吳熙常과 洪直弼이 송양서원을 展謁하고 개성 사림과 『大學』을 강했던 일에서 보듯 송양서원은 18세기 이후 낙학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고, 이는 조선후기 개성의 儒風이 낙학과 밀착되어 형성된 사실을 가리키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sup>26)</sup> 이처럼 송양서원은 조선후기 중앙 정부 및 중앙 학계와 긴밀하게 연결된 개성 유학 전통의 상징적인 장소였고, 20세기 들어와서도 1900년대의 자강운동이나 1910년대의 문예 활동이 모두 송양서원을 중심적인 장소로 삼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개성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회적 聖所였다고 할 것이다.

송양서원 이후 개성에는 17~18세기에 花谷書院(徐敬德 主享), 五冠書院(朴尙衷 主享), 道山書院(李齊賢 主享), 龜巖書院(李珥 專享)의 4개의 서원과 崇節祠(宋象賢 등 并享)와 表節祠(林先味 등 并享)의 2개의 사우가 건립되어 사액을 받았다. 여기서 송양서원까지 포함하여 이들 원우에 入享된 인물들을 보면 고려 유학자(이제현, 박상충, 정몽주)와 고려 태학생(임선미 등), 그리고 조선 유학자(서경덕, 이이)와 조선의 충신(송상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개성 유학사의 시각에서 본다면 고려 유학자나 고려 태학생은 개성 유학이라

26) 이상 송양서원에 대한 서술은 『中京誌』 崧陽書院條의 기사에 의지하였다.

기보다 고려 유학의 색채가 짙은 범주의 인물이라 할 수 있고, 조선 유학자의 경우에도 구암서원의 주향 이이, 그리고 오관서원의 배향 박세채를 개성 유학에 포함시킬 수 없음을 물론이거니와 화곡서원의 주향 서경덕조차 그 학적 위상을 반드시 지역적인 개성 유학자로만 한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물론 앞 절에서 보았듯이 서경덕이 개성의 유학 전통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대유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16세기 실제 서경덕의 학적 위상은 개성이라는 지역적 차원을 넘어서는 화담학파라는 거대 학맥 위에 놓여 있었다. 그렇게 볼 때 송양서원 이래 18세기까지 개성 지역에 건립된 원우에서 순수하게 조선의 지역적 유학으로서 개성 유학의 체취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들 개성 원우들은 지역 유학이 아닌 중앙 유학으로서 고려 유학과 조선 유학의 대유들을 기억했던 것이지 지역 유학으로서 개성 유학자를 기념했던 것은 아니다. 서경덕은 비록 송도삼절의 별칭이 있었지만 '개성의 대유'라기보다 박순, 민순, 허엽의 걸출한 고제를 양성한 '조선의 대유'에 가까웠고, 그렇기에 서경덕을 사사하거나 사숙한 개성의 향선생들은 서경덕을 기리는 화곡서원에 배향되지 못했다.

이 점에서 19세기는 대전환의 세기였다. 19세기 개성에 건립된 사우들은 그들의 入享 대상으로 조선시대 개성 지역의 명사들을 선택했고, 대부분 개성 유학 전통에 있는 유학자들이었다. 순조대 건립된 寒泉祠(朱子 主享)를 제외하고 四賢別廟(馬羲慶 등 并享), 崧南祠(林昌澤 등 并享), 男山祠(金履祥 등 并享), 新湖祠(許增 專享), 蘿山祠(趙有善 主享), 堯泉祠(金憲基 專享), 梨湖祠(金時鐸 등 并享), 龍陰祠(高敬恒 專享) 모두 개성 유학자를 향사하는 사우였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19세기 개성 원우에 입향된 조선시대 개성 인물 일람

사우	성명	자	호	생년	몰년	비고
四賢別廟	馬羲慶	仲積	竹溪	1525	1589	徐敬德의 문인. 朴世采의 墓銘
	韓舜繼	仁淑	市隱	中宗	宣祖	市隱集. 徐命膺의 墓銘. 成大中の 傳.
	金玄度	弘之	認齋	1551	光海君	成渾의 문인. 伊川府使.
	李慶昌	彥及	西村	1554	1627	徐敬德 사숙. 西村集.
崧南祠	金滉	浩然			金漬의 형.	

	金漬	君澤				壬亂 召募官, 朔寧 주둔.
	金濡	君洽				金漬의 아우.
	林昌澤	大潤	崧岳	1682	1723	金昌翁의 문인. 崧岳集, 海東樂府
	張昌復	吉初	杏溪			金斗文의 문인. 杏溪集.
	李春韓	公翊	新泉			崧南社 결성.
	金致洪		自厚齋			孝行으로 童蒙敎官 증직.
男山祠	金履祥	仲吉	心適堂	1498	1576	司藝, 心適堂遺稿.
	金履度	君吉	復一堂			金履祥의 아우. 崧岳 淫祀를 불사름.
	金斗文	季章	敬勝齋	1664	1706	尹拯의 문인. 關西夫子, 敬勝齋遺稿.
	張玄閔	濬之	四裁堂			崧南社 결성.
新湖祠	許增	川如	新湖	1724	1755	李緯의 문인. 御批生員, 中庸釋疑.
蘿山祠	趙有善	子淳	蘿山	1731	1809	金元行의 문인. 吏曹判書 추증. 蘿山集.
	趙有憲	季式	芝山	1736	1815	趙有善의 아우. 金元行의 문인.
堯泉祠	金憲基	穉度	堯泉	1774	1842	趙有善의 문인. 內部協辦 추증. 堯泉集.
梨湖祠	金時鐸	子木	梨湖	1713	1751	李緯의 문인. 梨湖遺稿.
	禹昌洛	得龜	天山齋		1806	李緯 · 金元行의 문인. 趙有善의 祭文
龍陰祠	高敬恒	義仲		1718	1755	張昌復의 문인. 金憲基의 墓銘

\* 출처 :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才行」·「孝子」: 金澤榮, 『崧陽耆舊傳』.

먼저 馬義慶, 韓舜繼, 金玄度, 李慶昌을 향사하는 四賢別廟를 보도록 한다. 사현별묘는 徐敬德을 향사하는 花谷書院 옆에 건립된 별묘이고, 따라서 사현별묘에서 향사하는 인물들은 서경덕의 영향을 받아 유학을 했던 개성의 명유일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 마희경(竹溪, 1525~1589)은 서경덕의 문인으로 李珥의 추천으로 北部參奉에 제수되었고 『역』에 정통한 인물이었다.<sup>27)</sup> 한순계는 서경덕이 문인들을 보내 會講에 초대할 정도로 서경덕에게 인정을 받았으며 사후에 李珥와 成渾으로부터 市隱이라는 별칭을 얻은 인물이었다.<sup>28)</sup> 김현도는 성혼의 문

27)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 〈馬義慶李慶昌〉; 朴世采, 『南溪集』 권75, 「北部參奉馬公墓表」.

28)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2, 「隱逸傳」, 〈韓舜繼〉; 徐命膺, 『保晚齋集』 권11, 「市隱韓先生墓碣」; 成大中, 『青城集』 권7, 「市隱先生傳」.

인이자 조헌의 벗으로 선조에게 宮役을 간쟁하여 四書五經을 하사받은 인물이었고,<sup>29)</sup> 이경창(西村, 1554~1627)은 서경덕을 사숙하여 『易』에 정통하였고 서경덕의 학풍을 이어받아 理學과 數學을 연구한 인물이었다.<sup>30)</sup> 여기서 이들 4인이 공통적으로 선조대~광해군대의 개성 유학자로서 서경덕의 문인 또는 후학이었으며, 주로 李珥와 成渾에게 주목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들이 관인으로 현달하거나 학자로 대성한 것은 아니었으며 다만 이 시기 서경덕의 유풍을 계승하는 개성 유학자로서 지명도가 높았다고 해석하는 편이 온당할 것이다.<sup>31)</sup>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서경덕을 계승하는 四賢으로 범주화되어 서경덕을 주향으로 하는 화곡서원 곁에 향사되었다는 사실이다. 趙有善은 「四賢別廟開基告由文」을 지어 마희경의 '淸芬'과 한순계의 '稱孝'과 김현도의 '勉仁'과 이경창의 '通理'를 기렸고,<sup>32)</sup> 「四賢別廟奉安祭文」을 지어 한순계는 “性本篤孝, 至行超羣”으로 김현도는 “潭老遺緒, 牛門嫡傳”으로 이경창은 “道紹潭老, 學造天人”으로 표창하였다.<sup>33)</sup> 이는 사헌의 개별적 인품과 학행을 집약한 것으로 사헌 중에 서경덕을 학문적으로 계승한 이경창을 사헌의 마지막 완성으로 설정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19세기 화곡서원 곁에 사헌별묘가 건립된 것은 개성 사헌이 서경덕을

29)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金玄度-靜厚〉. 金澤榮은 후일 「重編韓代崧陽耆舊傳」에서는 김현도를 立傳하지 않고 대신 그 사적을 김현도의 아들 김정후의 傳에 넣었다. 김택영의 문인 王性淳이 완성한 『崧陽耆舊詩集』을 보고 김현도가 개성 출신이 아니라 개성에 이주한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김현도를 개성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0)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馬義慶李慶昌〉; 李慶昌, 『西村集』 「西村集重刊序」(李學魯).

31) 마희경의 묘표를 17세기 서인 산림 朴世采가 짓고 한순계의 묘갈문을 18세기 소론 학자 徐命膺이 짓고 김현도의 아들 金靜厚의 묘갈문을 17세기 서인 명신 金墉이 지었던 것은 이들이 생전 또는 사후에 개성 출신으로서 비교적 높은 지명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경창 또한 사후에 개성 유수 嚴緯이 墓碣文을 지었음이 문집에서 확인되고, 선조연간 명나라 사신이 개성을 지나며 우연히 이경창의 글을 읽고 동행한 朱之藩에게 이경창을 '理通人'이라고 칭찬했다는 일화까지 전해진다.

32) 趙有善, 『蘿山集』 권10, 「四賢別廟開基告由文」.

33) 趙有善, 『蘿山集』 권10, 「四賢別廟奉安祭文」. 마희경에 대한 제문은 일실되어 문집에 수록되지 못했다. 조유선의 이 글은 『中京誌』 四賢別廟條에도 보인다.



계승하고 있다는 지역적 공인이었고, 개성 유학 전통의 사회적인 출현을 의미하였다. 사헌별묘 이후 조선시대 개성 유학자들을 향사하는 다양한 사우가 건립되었는데, 사헌별묘가 개성 유학 전통의 제1단계 사우라고 한다면 男山祠와 崧南祠는 개성 유학 전통의 제2단계 사우라고 할 수 있다. 남산사는 金履祥, 金履度, 金斗文, 張玄聞을 향사하는 사우이고, 송남사는 金滉, 金漬, 金濡, 林昌澤, 張昌復, 李春鞞, 金致洪을 향사하는 사우인데, 양자 공히 선조대 개성 사헌과 영·정조대 낙학 유학자 사이에 개성 지역에 존재했던 다양한 유학 전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가운데 먼저 남산사에 입향된 김두문(敬勝齋, 1664~1706)은 숙종대 개성 지역 최고의 유학자였다. 그는 서경덕과 같은 대유가 되기로 결심하고 개성 유생 尹忠甲에게 종유하였다가 다시 소론 영수 尹拯의 문하에 나아가 ‘關西夫子’의 칭호를 얻었으며<sup>34)</sup> 심지어 소론 문인 尹淳으로부터 ‘花潭後一人’이라는 극찬을 얻었다.<sup>35)</sup> 김이상(心適堂, 1498~1576)은 김두문의 7대조로 문장에 뛰어나고 중종대에 문과에 급제하여 通禮院 相禮가 되었는데,<sup>36)</sup> 개성인이 성종대 이후 비로소 금고가 풀려 중종대에 처음 문과 급제자가 배출된 사실을 돌아보면<sup>37)</sup> 그는 개성 지역 문과 급제의 역사에서 초기에 영예를 얻은 셈이었다. 김이도는 김이상의 아우로 명종대 개성 유생들을 선동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崧岳山 淫祀를 불태워서 關異端의 기백을 보였고, 이 사건에 대해 曺植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대의라고 평하였다.<sup>38)</sup> 남산사의 김이상과 김이도는 서경덕과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로 조선시대 초기 개성 유학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김이상의 『心適堂遺稿』와 김이상의 아들 金鍊光의 『松巖遺稿』, 그리고 상기한 김두문의 『敬勝齋遺稿』가 합본된 『心適堂松巖敬勝齋遺稿』가 소론의 지원으

34)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 〈金斗文-張昌復〉.

35) 尹淳, 『白下集』 권10, 『心適堂三世聯稿後序』.

36)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才行』.

37) 『續修中京科譜』, 『中京科譜續序』(崔中建). 조선이 건국된 후 개성 사람은 과거 응시가 금지되어 오랜 기간 폐고되었다가 成宗 庚寅年에 금고가 풀렸고, 中宗 乙亥年에 崔世津이 개성 출신으로 처음 문과에 합격하였다. 이로부터 과거제가 폐지되는 1894년까지 개성의 문과 합격자는 134인, 사마과 합격자는 696인으로 집계되었다.

38)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 〈金履道-林大秀〉.

로 영조대에 출간됨으로써<sup>39)</sup> 개성 유학에서 世稿 제작의 전통을 수립하였다.

승남사에 입학된 김황·김지·김유는 모두 형제지간으로 임진왜란 당시 선조의 행재소에 찾아가 김지가 소모관에 임명되고 김황과 김유가 그를 동행하여 경기도 朔寧에 주둔하며 유격 활동을 펼쳤다.<sup>40)</sup> 장창복은 상기한 김두문의 문인으로 몸가짐이 단아하여 張有道라는 별칭을 들었으며 영조대에 慶基殿參奉에 제수되었다.<sup>41)</sup> 남산사의 장현문과 승남사의 이춘화는 모두 정조대의 인물인데 장현문은 開城府分敎官에 천벽되었고 이춘화는 寧陵參奉에 제수되었다. 두 사람은 주경야독으로 농업과 강학을 병행하여 향당에서 유품을 크게 일으켰고 특히 崧南社를 함께 결성하여 朔望으로 會講하며 후학을 지도했다.<sup>42)</sup> 승남사에 입학된 임창택은 숙종대 개성의 저명한 시인으로 金昌翁의 문인이 되어 시명을 드날린 인물이다. 林大用과 함께 十仙會를 열며 강개한 시를 많이 지었는데, 선조대 車天輅와 더불어 개성의 양대 시인으로 “前有天輅, 後有昌澤”의 평을 들었다.<sup>43)</sup> 그 밖에 승남사의 김치홍은 『소학』의 嘉言善行을 반드시 몸으로 실천했다는 평을 얻었다.<sup>44)</sup> 이들 남산사와 승남사에 입학된 인물들은 16세기 전반 초기 개성 유학의 인물(김이상·김이도), 임진왜란 당시 충의를 보인 인물(김황·김지·김유), 숙종대~영조대 소론 학맥에 입지한 인물(김두문·장창복), 정조대 농업과 강학을 병행하여 향당 교화에 기여한 인물(장현문·이춘화), 숙종대 개성의 최고 시인(임창택), 기타(김치홍)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시기별로 16~18세기에 걸친 다양한 인물들이었지만, 거시적으로 보아 조선 전기 개성 유학을 대표하는 서경덕 및 개성 四賢, 그리고 조선 후기 개성 유학을 대표하는 낙학 학맥의 유학자들과 비교해서 과도기적인 단계에 처했던 또는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렀던

39) 『心通堂松巖敬勝齋遺稿』(奎 12432).

40)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2, 『忠義傳』〈金漬-金滉金濡朴乃成〉.

41)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金斗文-張昌復〉.

42)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張玄聞-李春驥〉.

43)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2, 『文詞傳』〈林昌澤〉. 임창택의 생애와 한시에 대해서는 장유승, 2011 『開城 文人の 自意識과 遺民意識』 『한국한시작가연구』 15, 한국한시학회 참조.

44)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孝子』.

인물들이었다고 평할 수 있다.<sup>45)</sup>

나머지 梨湖祠(金時鐸·禹昌洛), 新湖祠(許增), 龍陰祠(高敬恒), 蘿山祠(趙有善·趙有憲), 堯泉祠(金憲基)는 영조대 이후 낙학 산림 이재와 김원행 문하에 나아가 낙학 학맥에 입지했던 개성 유학자들이 입학된 사우들로, 개성 유학 전통의 마지막 제3단계 사우라 이를 수 있다. 이들 제3단계 사우에 입학된 개성 유학자들은 거의 모두 조선후기 성리학의 주류 학맥인 노론 낙학에 입지함으로써 개성 유학의 위상을 높였고 경학 연구와 유교 교화에 노력하여 개성 유학 전통을 일신하였다. 앞 절에서 보았듯이 김택영이 서경덕 이후 개성 성리학이 침체되어 있었으나 김시탁과 허증이 선창하고 조유선이 화답하고 김헌기가 운색하여 유학이 번창할 수 있었다고 논한 것도<sup>46)</sup> 이 때문이었다.

먼저 제3단계를 개막한 李緯 문하의 유학자들을 살펴보겠다. 이재 문하 최초의 개성 유학자는 이호사의 김시탁(梨湖, 1713~1751)이다. 그는 상인 가문에서 유자로 굴기한 인물인데 京師에 가서 李緯 문하에서 성리학을 수학하고 개성에 돌아와 강학 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오랫동안 학술이 침체되어 經儒가 드물었던 개성에서 이는 經學의 부흥을 의미하였다. 김시탁은 개성에서 낙학을 수용한 최초의 인물로 뒤이어 허증과 우창락의 낙학 수용을 촉발시켰다.<sup>47)</sup> 신희사의 허증(新湖, 1724~1755) 역시 김시탁과 마찬가지로 이재 문하에 나아가 강설을 들었고 경학 연구에 전념하여 『中庸釋疑』 등의 저술을 남겼다. 허증의 경학 수준에 대해서는 司馬試 會試에서 中庸에 관한 試券을 제출하자 영조가 직접 읽고는 第三의 평가를 내린 試官을 꾸짖고 第一의 평가를 내려 조선시대 유일의 ‘御批生員’이 되었다는 일화가 참고된다.<sup>48)</sup> 용음사의 고경항(1718~1755) 역시 김시탁·

45) 이와 관련하여 개성에 인물이 없다는 지적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李德壽는 임창택의 묘갈문을 지어 “松都古稱多人材, 百餘年來, 復寥寥無聞, 頗疑山川氣盡”이라고 하였고 [林昌澤, 『崧岳集』 附錄「墓碣銘」(李德壽)], 임창택 스스로도 崧岳의 岳靈에게 어찌서 개성에 인걸을 내리지 않느냐며 부르짖는 글을 지었다(林昌澤, 『崧岳集』 권2, 「岳靈問」). 이는 17세기 개성 유학의 전반적인 침체와 연결시켜 생각할 문제이다.

46)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金時鐸·許增〉.

47)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金時鐸·許增〉.

48)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金時鐸·許增〉.

허증과 더불어 유학을 강마했던 인물로 대유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聖居山에 입산하여 경학 연구에 분투하는 치열한 삶을 살았다.<sup>49)</sup>

개성 유학은 이재 문하에 이어 김원행 문하에도 연결하여 낙학 학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나산사의 조유선(蘿山, 1731~1809)과 조유현(芝山, 1736~1815) 형제는 약관의 나이에 김원행을 사사하여 미호 문하의 주요 문인이 되었다. 조유선은 본디 김시탁의 문인이었는데 김원행 문하에 진출한 후 정조대에 사헌부감찰, 익산군수 등 관직 생활을 하였으며, 사후 개성 유학자로서는 드물게 이조판서에 추증되는 영예를 입었다. 영조대 개성 유학의 경학적 전환을 이룩한 이재 문하의 김시탁과 허증이 30대의 나이에 단명하여 대성하지 못한 반면, 김원행 문하의 조유선은 70대의 수를 누리며 김시탁과 허증의 과업을 이어받아 정조대 개성 유학의 번영을 구가하였다. 그 결과 19세기 낙학 산림 흥직필은 ‘古都之學’이 정몽주에서 시작해 서경덕에 이르러 數를 보았고 조유선에 이르러 온전하게 理를 보았다며 조유선을 “西京數百年來一人而已”라고 극찬하였고,<sup>50)</sup> 장지연은 앞 절에서 보았듯 조유선을 “徐花潭以後, 最以經學家推重”이라고 평가하였으며,<sup>51)</sup> 김택영은 조유선이 오랜 동안 강학하여 뛰어난 인재들이 운집하였던 것을 개성의 時運으로 보면서 18세기 개성 유학을 “英正之間, 文學極盛”이라고 인식하였다.<sup>52)</sup> 그 밖에 이호사의 우창락(天山齋, ?~1806)은 조유선과 함께 梨湖社에서 강학하며 道義交를 맺은 인물로 조유선은 우창락의 학문에 대하여 ‘奉規寒泉’과 ‘漢門共傳’을 병거하여 영조대 이재 문하의 유학에서 시작하여 정조대 김원행 문하의 학문으로 완성하였다고 평하였다.<sup>53)</sup>

제3단계 개성 유학의 마지막 완결자는 요천사의 김헌기(堯泉, 1774~1842)이다. 김헌기는 조유선의 문인으로 경학에 전념하여 순조대~헌종대 개성 유학의 최고봉이 되었다. 그는 이미 정조대부터 金尙欽(牧洞, 1760~1811)·韓履源(基

49)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高敬恒〉; 金憲基, 『初菴集』 권10, 『高峯高公墓誌銘』.

50) 洪直弼, 『梅山集』 권42, 『蘿山趙公墓誌銘-并序』.

51) 張志淵, 『朝鮮儒教淵源』 권2, 『趙有善』.

52)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趙有善-韓敬儀馬游韓光鎮〉.

53) 趙有善, 『蘿山集』 권10, 『祭禹得龜-昌洛』.

谷, 1766~1827) · 金天復(止菴, 1767~1811) 등과 더불어 樂聚會라는 講社를 설립하여 개성의 講經을 주도하였고,<sup>54)</sup> 순조대에는 湖洛講說을 연구하여 낙론의 입장에서 性에 多寡偏全이 없음을 주장하거나<sup>55)</sup> 양명학을 연구하여 王守仁의 致良知說을 반박하는 장문의 논설을 완성하였다.<sup>56)</sup> 이와 같은 경학 성과는 종래 개성 유학 전통에 비추어 유례가 드문 일이었다. 김헌기의 학행에 대해서는 이미 개성에 우거한 적이 있는 李忠翊이 김헌기를 大儒라고 지목한 적이 있었고, 이충익의 손자 李是遠이 순조대 경기어사가 되어 김헌기를 ‘全道 學行 一人’으로 천거한 적이 있으며,<sup>57)</sup> 이시원의 손자 李建昌이 고종대 경기어사가 되어 김헌기를 “眞豪傑之士, 君子之儒”라고 평한 적이 있었는데,<sup>58)</sup> 급기야 대한제국기에 들어와 ‘西儒之傑’ 김헌기에게 內部協辦이 추증되었다.<sup>59)</sup> 김헌기는 영조대 개성의 경유 김시탁이나 정조대 개성의 대유 조유선과 달리 낙학에 유학하지 않고 스스로 개성에서 경학을 성취한 개성 유학의 자존심이었으며,<sup>60)</sup> 그렇기에 김택영은 김헌기에 대해 개성의 경유 중에 홀로 ‘光明超卓’하고 ‘文質彬彬’했다고 평가하고,<sup>61)</sup> 또한 김헌기가 ‘師承 없이 入道’한 ‘本邦經學家의 으뜸’이라며 훗날 한국이 독립되어 새 국가가 들어서면 반드시 김헌기를 文廟에 從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2)</sup>

54) 金憲基, 『初庵集』 「年譜」 戊午條

55) 金憲基, 『初庵集』 「年譜」 乙丑條

56) 金憲基, 『初庵集』 「年譜」 辛巳條

57) 金憲基, 『初庵集』 「年譜」 癸巳條

58) 金憲基, 『初庵集』 「年譜」 癸未條

59) 金憲基, 『初庵集』 「年譜」 光武五年條

60) 이와 관련하여 김헌기의 실력이 경화학계의 산림을 능가하였음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다음 일화는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김헌기가 평소 주량이 있었는데 어느날 순조대 낙학 산림 吳熙常과 洪直弼이 찾아오자 문생을 시켜 커다란 바가지에 탁주를 담아 들리자 두 사람은 마시면서 단색이 있었으나 김헌기 홀로 연이어 몇 바가지 마셨고 취기가 돌자 논설이 격앙되어 두 사람이 “김처사는 참으로 일세호걸이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金澤榮, 『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 〈金憲基先生〉). 오히려 흥작필은 19세기 전반 대표적인 낙학 산림으로 1824년 승양서원에 와서 강회를 열었던 적이 있는데 이 일화가 이 때 생겼는지도 모른다.

61)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 〈金憲基先生〉.

이상으로 조선시대 개성 지역 유학의 전개 과정을 개성의 원우 건립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선시대 개성 유학의 지역적 전통이 반영되어 원우가 건립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었으며, 흥미롭게도 조선시대 개성 지역 유학사의 역사적 단락과 일치하여 19세기 개성 원우의 시기별 건립이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19세기 최초의 원우는 四賢別廟인데, 사헌별묘에 입학된 인물들은 개성 지역에서 서경덕 이후 서경덕의 학문을 계승했다고 평가되는 四賢이었고, 사헌별묘 다음에 건립된 원우는 南山祠와 崧南祠인데, 남산사와 승남사에 입학된 인물들은 16~18세기 개성 지역의 주변적이고 과도기적인 다양한 인물들이었으며, 남산사와 승남사 다음에 건립된 원우는 新湖祠, 蘿山祠, 堯泉祠, 梨湖祠, 龍陰祠인데, 이들 원우에 입학된 인물들은 18세기 이후 노론 낙학의 학문적 입지에서 개성 유학의 경학적 번영을 이룩하고 나아가 독자적인 개성 경학을 실현한 유학자들이었다. 이는 19세기 말 김택영이 『승양기구전』 「학행전」에서 제시하는 개성 유학사의 역사적 단락과 구조적으로 일치한다. 김택영 역시 기본적으로 개성 유학사를 서경덕 이후 김헌기 이전까지 16세기 사헌의 시기, 17세기 서인—소론의 시기, 18세기 이후 낙학의 시기로 세 단락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sup>63)</sup>

62) 金澤榮, 『韶護堂文集』 권8, 「金堯泉先生宜配饗聖廟私議」.

63) 조선시대 개성 유학사는 『승양기구전』 「학행전」에 입전된 인물들의 전기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학행전」에는 ①〈徐敬德先生〉 ②〈金履道-林大秀〉 ③〈馬義慶李慶昌〉 ④〈金玄度-靜厚〉 ⑤〈尹忠甲-崔繼林〉 ⑥〈金斗文-張昌復〉 ⑦〈高敬恒〉 ⑧〈金時鐸許增〉 ⑨〈張玄閔-李春驊〉 ⑩〈趙有善-韓敬儀馬游韓光鎮〉 ⑪〈金憲基先生〉 ⑫〈任相翼〉 ⑬〈姜文豹〉의 13편의 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학행전」의 관점 역시 원우 입학 인물 분석에서 확인된 개성 유학사의 3단계와 구조적으로 일치한다. 먼저 ①〈徐敬德先生〉 ②〈金履道-林大秀〉 ③〈馬義慶李慶昌〉은 개성 유학사에서 서경덕과 사헌을 중심으로 하는 제1단계이다. ④〈金玄度-靜厚〉 ⑤〈尹忠甲-崔繼林〉 ⑥〈金斗文-張昌復〉는 개성 유학사에서 성혼의 서인 학맥과 윤증의 소론 학맥이 들어섰던 제2단계이다. ⑦〈高敬恒〉 ⑧〈金時鐸許增〉 ⑨〈張玄閔-李春驊〉 ⑩〈趙有善-韓敬儀馬游韓光鎮〉 ⑪〈金憲基先生〉 ⑫〈任相翼〉 ⑬〈姜文豹〉는 개성 유학사에서 낙학의 유입과 경학의 부흥으로 집약되는 제3단계이다. 김택영은 후일 『승양기구전』을 수정하여 『증편한대승양기구전』을 편찬했는데, 여기서는 ⑫〈任相翼〉 ⑬〈姜文豹〉를 삭제하여 '서경덕-김헌기'라는 개성 성리학의 두 극점을 선명히 제시했다. 서경덕 이후 김헌기 이전까지 개성 유학사를 크게 16세기 사헌의 시기, 17세기 서인-소론의 시기, 18세기 낙학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 3. 개성 유학 전통의 실제

#### 1) 儒風의 형성과 洛學의 유입

지금까지 개성 원우 입향 인물들의 검토를 통하여 개성 유학의 역사적 단락을 구별하였다. 개성 유학은 대체로 서경덕과 김헌기라는 두 극점 사이에 크게 16세기 四賢의 시기, 17세기 서인—소론의 시기, 18세기 낙학의 시기로 세 단락을 부여할 수 있음을 보았다. 이 세 단락은 원우 입향이 함축하는 개성 유학에 대한 지역 사회의 상식적 통념을 돌아볼 때 개성 유학 전통을 읽는 개성 사회 내부의 관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관점은 19세기의 관점이다. 조선시대 개성 유학은 19세기 들어와 개성 지역 인물들이 自鄕 원우에 입향되고 『송양기구전』과 같은 집단 전기로 표장됨으로써 비로소 지역 사회에서 개성 유학이라 칭할 만한 전통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시대 개성 유학이 이와 같이 전통으로 형성된 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문화적 요인들이 작용하였을 것이고 이를 통해 개성 유학 전통의 특색이 발현되었을 것이다. 먼저 개성 유학이 지역적 범주에서 통합적으로 형성되기 앞서 지역내 가문의 범주에서 개별적으로 형성되고 있었던 추세를 지적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선조대 韓今翥은 李珥·成渾과 교유가 있던 개성인이었는데, 趙光祖의 문인 韓汝魯의 현손이자 成守琛의 문인 韓守鍊의 손자로 ‘家庭淵源之學’을 이어받아 성리학에 전념하였다. 이후 한금향의 6대손 韓道謙, 다시 그 아들 韓光綽, 다시 그 아들 韓商東이 3대에 걸쳐 개성의 효자로 포증되었고, 한금향의 7대손 韓敬素(蒼淵, 1754~1817)와 韓敬儀(菑墅, 1739~1821) 역시 효자로 포증되었는데 이들은 각각 『蒼淵集』과 『菑墅集』을 남긴 유학자였다.<sup>64)</sup> 선조대 개성에 ‘가정연원’을 배경으로 갖춘 사인이 있었고 조선후기에 그 후손들이 대대로 효의 전통을 이어가며 유학자로 성장하는 사례는 지역 유학 전통의 축적을 제시하는 단면이라 하겠다.

개성 ‘사현’의 형성 역시 이런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서경덕을 학문적으로

64)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孝子」.

계승하는 '사현'이라는 개념이 19세기에 건립된 사현별묘를 통해서 표출될 수 있었던 것도 실은 '사현'을 구성하는 개별 인물의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개성 사회에서 유교적 명망을 유지하며 가문의 전통을 지속할 수 있었던 데서 원인을 구해야 할 것이다. 먼저 '사현'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馬義慶의 경우 두 아들 馬伏龍과 馬攀龍 모두 儒行이 있어서 삼부자의 현철함이 金靜厚의 『坊名志』에 기록되었고,<sup>65)</sup> 마희경의 손자 馬嗣宗은 문학으로 이름나 尹根壽 문하에 종학하여 윤근수로부터 '西京儒雅'라고 칭찬을 들었으며, 마희경의 7세손 馬最常도 篤孝의 세평을 들었다.<sup>66)</sup> 또한 마희경의 형 馬義祥도 효렴으로 별천되었고 이이로부터 "家傳孝友, 學貫天人"이라는 칭찬을 들었으며, 마희상의 손자 馬尙遠은 車天輅·車雲輅 형제에 버금가는 詩名이 있어서 '兩車一馬'의 명성을 들었다.<sup>67)</sup>

韓舜繼와 李慶昌 역시 후손들이 가풍을 계승하였다. 한순계의 경우 현손 韓暹과 한섬의 아들 韓泰鎭이 모두 효자에 포증되었다. 이들은 한순계가 종사한 구업을 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효의 가풍을 현창하였고, 그 결과 한태진은 한순계의 별칭 市隱에 빗대어 '小市隱'이라는 별칭을 얻기까지 하였다.<sup>68)</sup> 이경창의 경우 아들 李義男과 이의남의 7세손 李載均도 효자에 포증되었다. 이의남은 명자호란 후 처음 釋奠을 지내는데 순서를 잃은 兩廡의 위치를 바로잡고 祝笏을 정확히 암송하는 특이 행적을 보이기도 하였다.<sup>69)</sup>

김현도는 金埴으로부터 "近代 西洛 문사 중에서 金認齋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다."<sup>70)</sup> 평을 들은 개성의 명사였다. 김현도는 성혼의 문인으로 개성 출신자가 아니라 개성 이주자였으나 徐敬德의 표질 朴允檢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개성 지역에서 "潭老遺緒, 牛門嫡傳"의 권위를 얻는 데 성공하였다. 김현도의 아들 金靜厚는 광해군대 연흥부사로 재직 시 金悌男 옥사에 대해 陳賀하는 箋文을 올리지

65)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10, 「附錄」.

66)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10, 「增補」.

67)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10, 「增補」;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2, 「文詞傳」〈朴民瞻曹臣俊馬尙遠〉.

68)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孝子」.

69)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孝子」.

70) 金埴, 『潛谷遺稿』 권12, 「禮曹正郎金君墓碣銘」.



않았고, 김정후의 아들 金泳은 사옹원참봉으로 재직 시 청의 詔使가 오면 백관이 관례적으로 하는 庭拜를 하지 않으려 했다. 그 결과 “金氏名節, 世濟其美”라는 평을 얻었다.<sup>71)</sup> 김정후는 “學優行高, 一鄉師表”의 평을 들으며 지역 사회에서 학행으로 확고한 입지를 다졌고, 그랬기에 김정후의 증손 金普에 이르러 이 가문은 이미 ‘詩禮之家’로 인정받고 있었다.<sup>72)</sup> 김택영은 김보의 시에 대해 두보의 규모가 있고 豪壯頓跌하여 作者風이 있으니 ‘一時의 奇才’라고 칭양했지만,<sup>73)</sup> 이에 앞서 김현도 역시 少年科第로 명성을 드날렸고 김정후 역시 ‘三代兩漢’의 책이 아니면 책을 읽지 않는 확고한 문학적 식견을 지녔다.<sup>74)</sup>

지역 사회 안에서 개별 가문의 유학 전통의 형성은 가문의 문집 축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택영은 『송양기구전』에서 17세기 개성 유학의 대표자로 17세기 전반의 崔繼林과 17세기 후반의 金斗文을 선별한 바 있었는데, 이들은 개성 지역에서 2대 이상의 세고를 출간한 것으로 저명하다. 김두문의 경우 16세기 초기 개성 유학의 형성 과정에서 金履祥·金履度 형제의 행적과 이 가문의 문집 출간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 있거니와, 김이상의 『心適堂遺稿』와 김이상의 아들 金鍊光의 『松巖遺稿』, 그리고 김이상의 7세손 金斗文의 『敬勝齋遺稿』가 합본된 『心適堂松巖敬勝齋遺稿』가 영조대에 출간된 것은 조선후기 개성 지역에서 세고의 출현으로 주목할만한 사건이었다. 본래 개성의 충효를 상징하는 김이상-김연광 부자의 양대 문집을 출간할 계획이었으나 윤증 가문의 요청으로 윤증 문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김두문의 문집도 가문의 전통에 추가된 것이었다.<sup>75)</sup> 최계림의 경우 최계림·崔齊華·崔命三·崔進大·崔星景의 5대에 걸친 문집이 합본되어 1918년 崔文鉉에 의해 『崔氏五世遺稿』가 출간되었다. 조선후기 당대에 출간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5대에 걸쳐 문집을 생산할 수 있었던 개별 가문의 유학적 역량이다. 더욱이 5대에 걸쳐 사마시에 합격하여 문학 또는 재행으로 각인마다 ‘一代의 聞人’이 되는 것은 유례가 드문 일이었다.<sup>76)</sup>

71)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 〈金玄度-靜厚〉.

72)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才行』.

73)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2, 『文詞傳』 〈金普〉.

74) 李春英, 『體素集』 下, 『送金秀才靜厚序』.

75) 尹東源, 『敬菴遺稿』 권8, 『敬勝齋集跋』.

이 가운데 특히 최계림은 효종 초에 崇道學·振紀綱·救民瘼 등 12조의 상소를 올려 崇道學의 급선무로 李珥의 문묘 중사를 청했던 인물이고,<sup>77)</sup> 최계림의 증손 최진대는 泮齋 건립을 의논하고 鄕約을 실시하여 개성에서 유품을 진작한 인물이며,<sup>78)</sup> 그랬기에 최계림의 7대손으로 효자에 포증된 崔裕錫은 이미 ‘詩禮之家’에서 성장했다고 인식되었다.<sup>79)</sup>

개성 유학 전통에서 家風의 계승 및 世稿의 집적과 더불어 중요한 현상은 家學의 계승이다. 여기서 가학의 계승이란 특정한 개성 유학자가 지역 사회에서 학문적 기치를 수립하고 그 뒤를 이어 여러 세대에 걸쳐 학자가 배출되어 학풍이 전승되는 것을 가리킨다. 앞에서 보았듯이 개성 지역에서 가풍의 계승이나 세고의 집적은 16~17세기부터 발견할 수 있지만 가학의 계승은 18세기 이후 낙학의 영향으로 경학이 활성화되어 적지 않은 經儒가 배출되면서부터 관찰되는 현상인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趙有善·趙綱溫·趙鼎休 3대의 가학을 거론할 수 있다. 조유선은 개성 유학사상 처음으로 주자의 眞詮을 수련하여 완벽하게 주자학에 도달한 ‘西京數百年來一人’,<sup>80)</sup> 또는 수백년간 사장학과 공령학에 빠져들었던 개성 학계에 처음으로 道學을 정착시킨 ‘不世出의 名儒’로<sup>81)</sup> 평가 받았는데, 조유선의 아들 조경은 역시 성리학에 매진하여 만년에 조예가 깊어져 金長生-金集에 비유될 정도로 家學의 嫡傳을 인정받았고,<sup>82)</sup> 조경은의 아들 조정후 역시 성리학에 매진하여 조유선의 嫡傳임을 인정받았다.<sup>83)</sup> 조유선의 3대 가학에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張玄聞·張鵬逸·張錫五의 3대 가학도 주목되는 현상이다. 장현문은 지역 사회에서 耕讀並行을 선도하여 유교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한 實學으로 정평이 있었고 男山祠에 입향되었는데,<sup>84)</sup> 장현문의 종자 장봉일 역시 주경

76) 『崔氏五世遺稿』 「識」(崔益受)(奎 12430).

77)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10, 「附錄」.

78)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才行」.

79)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10, 「附錄」.

80) 趙有善, 『蘿山集』 권12, 부록 「墓誌銘」(洪直弼).

81) 趙有善, 『蘿山集』 권12, 부록 「請褒疏」(洪直弼).

82)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才行」.

83)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才行」.

84)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張玄聞-李春驊); 金憲基, 『初菴集』 권5, 「爲士林

아독으로 강회를 이끌며 耕隱處士의 칭호를 얻고 質行을 평가 받았고, 장봉일의 아들 장석오 역시 수십년 강학하며 '眞實好學'의 평가를 받았다.<sup>85)</sup>

이처럼 16~17세기 개성 지역에서 개별 가문 단위의 유학 전통이 축적되어 갔다면 18세기 이후에는 개성 사람이 적극적으로 중앙 학계와 학연을 맺으며 다양한 유학 전통을 형성하였고, 지역 내부에서 지방 학계가 뚜렷하게 성립함에 따라 유학 전통의 사회적 토대가 강화되었다. 개성인은 이제 개성에서 鄉師를 정하고 중앙에서 京師를 정하여 지방과 중앙의 양방향에서 소통하며 지역 사회의 유학 전통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18세기 이재 문하와 김원행 문하에 나아가 낙학을 섭취하고 개성에 돌아와 경학을 발전시킨 다양한 유학자가 있음을 일별한 바 있지만, 여기서 조금 자세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다.

먼저 李緯 문하에 나아간 개성 유학자로는 梨湖祠에 입향된 金時鐸과 新湖祠에 입향된 許塏 이외에도 朴貞幹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박정간은 문사가 탁월하여 崔崧과 車天輅의 수준으로 인정받았고, 이재 문하에서 성리학에 전념한 후 경학에 매진하여 『經義集解』를 저술하였다.<sup>86)</sup> 또, 林游와 林洵 형제는 이재의 문인 李宜皙을 사사했는데 임순은 篤修儒行을 평가받은 개성의 효자였다.<sup>87)</sup>

다음으로 金元行 문하에 나아간 개성 유학자로는 蘿山祠에 입향된 趙有善·趙有憲 형제가 대표적인 인물들이며, 조유선이 개성 학계를 주도함에 따라 조유선 문하의 문인들도 대체로 김원행의 낙학에 수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유선의 아들 趙綱溫도 김원행을 찾아가 爲學하는 법도를 들었고 만년에 조제가 깊어져 家學의 嫡傳을 성취한 것으로 평가된다.<sup>88)</sup> 韓敬儀, 韓光鎭과 더불어 조유선의 문인으로 지명한 馬游는 김원행의 아들 金履安을 찾아가 유학을 졸업하였다.<sup>89)</sup> 아울러 張玄聞의 종자 張鵬逸은 김원행의 아들 金履安에게 종학하였고, 장현문의 가풍을 계승하여 夜讀朝耕에 힘써서 耕隱處士라는 칭호를 얻었다.<sup>90)</sup> 한편 禹昌

請褒四裁堂張公書」.

85)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10, 「增補」.

86)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才行」.

87)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孝子」.

88)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才行」.

89)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趙有善-韓敬儀馬游韓光鎭〉.

洛은 이재와 김원행 양문하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사우와 강학하여 ‘中京 文學이 이에 창성하였다’는 평을 얻기까지 하였다.<sup>91)</sup>

19세기 개성 유학은 상당수 낙학 산림 吳熙常과 洪直弼의 문하와 연결되었다. 여기에는 조유선의 손자 趙鼎休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희상을 사사하고 洪직필과 宗유하여 양자로부터 ‘故都文獻冠冕’의 인정을 받았다.<sup>92)</sup> 조유선의 문인 金聲大도 오희상·洪직필과 宗유하여 도의를 강마하였는데, 개성 유수가 이들에게 김성대의 ‘爲己實學’을 자신있게 단언할 정도였다.<sup>93)</sup> 金煥亨은 약관에 吳熙常을 사사하고 개성에 돌아와 과거학을 끊고 성리학에 매진하였는데, 洪직필이 이를 격려하여 김환형을 ‘三代上人物’과 같다고 하였고,<sup>94)</sup> 金觀亨 역시 오희상·洪직필과 宗유하고 개성에서 유학 교육에 힘썼다.<sup>95)</sup> 김이안에게 종학한 경은처사 장봉일의 아들 張錫五는 洪직필을 사사하고 洪직필로부터 ‘眞實好學’의 칭찬을 들었다.<sup>96)</sup> 文尙鈺은 오희상에게 집지했는데 오희상으로부터 경학을 칭찬 받았으며 특히 예학을 잘해서 질의하는 사람이 많았다.<sup>97)</sup>

이처럼 18~19세기 개성 유학과 연결된 낙학 산림이 주로 ‘이재—김원행—오희상—洪직필’에 집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이들이 조선후기 낙학의 종장으로 전국적인 영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성 지역 밖에서 사승 관계를 형성한 개성 유학자의 다수가 이들의 문하에 나아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개성 유학이 관계를 맺은 중앙 학계가 반드시 이들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易論이 뛰어난 개성의 經儒 金光汶은 尹得觀을 사사하였는데,<sup>98)</sup> 윤득관은 본래 朴弼周의 문인으로 魚有鳳의 문하에도 출입하였다.<sup>99)</sup>

90)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10, 「增補」.

91)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才行」.

92)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才行」.

93)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才行」.

94)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才行」.

95)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孝子」.

96)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10, 「增補」.

97)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孝子」.

98)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才行」.

99) 魚有鳳, 『杞園先生年譜』 권2, 己未條. 윤득관은 개성 유수를 지낸 윤근수의 후손으로

개성의 효자 李贊은 鄉師 金時鐸과 京師 閔遇洙에게 모두 중시된 학자로 알려져 있다.<sup>100)</sup> 향사 김시탁의 스승이 이재이지만 민우수를 경사로 섬긴 것이다. 18세기 개성 낙학을 개막한 중심인물의 하나인 許墦은 낙학 산림 이재의 문인이었지만 허증의 손자 許懋는 낙학이 아닌 湖學 산림 宋煥箕의 문하에서 수업을 받았다.<sup>101)</sup> 심지어 김택영이 김헌기 이후의 개성의 유학자로 높이 평가한 任常翼은 처음 조유선에게 종학했다가 호학 학인 李度中을 사사한 경우에 속한다.<sup>102)</sup>

18세기 낙학의 유입은 지역적으로 개성 학통의 형성을 촉진하였다. 조선시대 개성 사회에서 개성 유학자가 문도를 양성하여 학문을 전승했던 일은 적어도 16세기 전반 서경덕으로 소급된다. 서경덕이 개창한 화담학파에는 車軾·馬羲慶·韓大用·黃元孫 등 개성인들도 적지 않았지만<sup>103)</sup> 화담학파는 지역적인 학파가 아니라 전국적인 학파였으며 정작 지역 내부에서는 비록 서경덕의 유품이 학술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서경덕의 학문이 학통으로서 지속되지는 못했다. 개성에서 학통의 형성은 17세기 후반 金斗文에 이르러 비로소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김두문은 서경덕과 같은 대유가 되겠다고 결심하여 윤증 문하에서 수학하고 關西夫子의 칭호를 들었던 인물로 그 문인으로 張昌復·朴泰彬<sup>104)</sup> 등이 있었고, 다시 장창복의 문인에는 金時鐸·高敬恒 등이 있었으며, 다시 김시탁의 문인에는 趙有善·李贊·張後仲 등이 있었다. 그러나 김두문이 소론학계에 입지한 반면, 김시탁·조유선은 노론 낙학에 입지하였으니 김두문—장창복 이후 다시 동질적인 성격의 학통을 말하기는 어렵다.<sup>105)</sup>

---

서경덕의 학문을 존경하여 『화담집』 중간본에 발문을 지은 인물인데 조선후기 ‘개경학’의 범주에서 윤득관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원유한, 2001 「개경학의 성립 및 실학과 연계」 『실학사상연구』 21, 무악실학회).

100)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孝子」.

101)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才行」.

102)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任相翼〉.

103) 徐敬德, 『花潭集』 권4, 부록 「門人錄」.

104) 개성 효자 박태빈은 호는 二務堂으로 ‘鄉賢’ 敬勝齋 金斗文에게 孝經을 수학하였다고 한다(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孝子」).

105) 김시탁은 李緯의 문인이 되기 전에 강화에 건너가 鄭齊斗의 문인이 되고자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김시탁이 처음 이와 같은 결심을 취했던 배경에는 장창복의 영향도

그렇게 볼 때 조선후기 개성에서 동질적인 지역 학통의 성립은 낙학이 유입된 이후의 현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며 낙학과 연계된 經儒들이 개성 지역에서 강회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지역 학통의 주체로 부상했다고 볼 수 있다. 18~19세기 개성에서 일어난 강회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金時鐸의 槐泉書堂 및 梨湖書堂 강회,<sup>106)</sup> 張玄聞·李春鞞 등의 崧南社 강회,<sup>107)</sup> 趙有善의 崧陽書院 및 校宮 강회,<sup>108)</sup> 金憲基·金尙欽·韓履源·金天復 등의 聚學會 강회<sup>109)</sup>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김시탁이 열었던 槐泉書堂 강회와 梨湖書堂 강회는 이제 문하의 강규를 바탕으로 하였고,<sup>110)</sup> 조유선이 열었던 승양서원 강회는 조유선이 승양서원 원장으로 초청한 김원행이 마련한 강규에 입각하여 진행되었다.<sup>111)</sup>

조유선은 당세 낙학 종장을 개성 제일의 승양서원 원장으로 초청해 그 간 강회의 전통이 없었던 승양서원에 유학의 활력을 고취했을 뿐만 아니라 개성 제일의 대유로서 자기 시대의 개성 유학 전통을 창출하는 데 온갖 힘을 쏟았다. 조유선은 개성 유학의 상징적 존재인 서경덕의 『화담집』의 마지막 완결판을 간행하는 사업을 馬之光과 주도하여 이를 성사시켰고,<sup>112)</sup> 서경덕 이후 서경덕을 계승한 개성의 鄉賢들을 馬義慶·韓舜繼·金玄度·李慶昌 4인으로 확정하여 이들 ‘鄉賢四先生’의 行錄을 별도로 구비하고,<sup>113)</sup> 서경덕을 주향으로 향사하는 花谷書院 곁에 마침내 四賢別廟를 건립하여 上樑文과 奉安祭文을 작성하였다.<sup>114)</sup> 개성 유학사에서 차지하는 서경덕과 사헌의 역사적 위상을 고려할 때 조유선이 이룩한 이와 같은 업적은 조선후기 개성 유학 전통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

있지 않았을까 한다.

106) 金時鐸, 『梨湖遺稿』 부록 권3, 「言行錄」 12-13면.

107)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張玄聞·李春鞞〉.

108) 趙有善, 『蘿山集』 권11, 부록 「年譜」 戊子條 및 癸丑條.

109) 金憲基, 『初庵集』 「年譜」 戊午條.

110) 金時鐸, 『梨湖遺稿』 권2, 「槐泉書堂立規」·「梨湖書堂講規」.

111) 趙有善, 『蘿山集』 권11, 부록 「年譜」 戊子條;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5, 「學校」〈崧陽書院〉.

112) 徐敬德, 『花潭集』 「花潭先生文集重刊序」(尹塾).

113) 趙有善, 『蘿山集』 권7, 「書鄉賢四先生行錄後」.

114) 趙有善, 『蘿山集』 권10, 「四賢別廟上樑文」·「四賢別廟奉安祭文」.

미가 부여될 수 있다. 따라서 정조대~순조대 조유선의 이와 같은 활동을 고려할 때 조선후기 개성 지역에서 상당수 유학자가 조유선의 문하에서 배출된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김택영은 조유선의 주요 문인으로 韓敬儀·馬游·韓光鎭·金憲基·金天復·林孝憲·金聲大·任常翼 등을 꼽았는데<sup>115)</sup> 그 밖에 韓履源·許懋, 許銓·金相禹·李錫老·禹德麟 등도 여기에 추가할 수 있다.<sup>116)</sup> 이들 문인들은 지역 사회에서 경학 연구와 강회 활동을 통해 개성 유학의 번영을 견인하였다.

## 2) 易學·經學·禮學·理學의 전개

18세기 개성 유학의 번영은 개성 유학의 경학적 전환을 초래하였다. 종래 易學 또는 數學을 중심으로 했던 개성 유학은 전통적인 학풍을 확장하여 주자학에 입각한 유교 경전 전반에 대한 경학 연구에 진입하였다. 종래의 개성 유학은 16세기 개성의 대유 서경덕의 학풍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서경덕은 易學에 입각하여 理氣·心性·元會에 모두 통달한 진정한 東國의 邵雍으로 간주되었다.<sup>117)</sup> 특히 『易』과 『皇極經世書』에 정통했기 때문에 서경덕의 學은 張橫渠보다 못하지 않고 서경덕의 數는 邵康節에게 양보하지 않는다는 세평까지 있었다.<sup>118)</sup> 서경덕의 역학은 물론 스스로의 사색과 자득에 의한 것이지만, 고려 후기

115)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趙有善·韓敬儀·馬游·韓光鎭〉.

116) 한이원은 조유선 문하에서 가장 오래 수학한 문인이데(韓履源, 『基谷雜記』 권7, 附錄「處士是憂齋韓公墓誌銘-并序」), 김택영이 『승양기구전』에서 조유선의 주요 문인을 열거하면서 빠뜨린 것은 의외이다. 『승양기구전』에 崔漢綺가 입전되지 않은 현상과 연결시켜 생각할 문제인지 모르겠다(유봉학, 1998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추측컨대 한이원이 개성에서 장단으로 이주하였고 최한기도 개성에서 한양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김택영이 타향 이주자를 『승양기구전』에서 제외한 것이 아닌가 한다(한이원의 장단 이주와 최한기의 한양 이주에 관해서는 權五榮, 1999 『崔漢綺의 學問과 思想 연구』, 집문당). 아울러 허무는 송환기의 문인이지만 조유선 문하에서 졸업하였으며, 이석로는 『논어』와 『효경』에 조예가 깊었으며(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才行」), 허전과 김상우는 개성의 효자인데 김상우는 「武學」의 별칭이 있었으며(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孝子」), 우덕린은 예학에 정통하였다(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10, 「增補」).

117) 徐敬德, 『花潭集』 「花潭先生文集重刊序」(尹塾).

118) 徐敬德, 『花潭集』 「花潭先生文集跋」(尹孝善).

안향이 도학을 도입한 이래 형성된 고려의 역학 전통이 禹倬—禹吉生—鄭夢周를 거쳐 조선에 전해졌다는 경학사적 맥락도 개재해 있었다.<sup>119)</sup> 물론 申欽은 조선에 평소 역학이 없었는데 서경덕이 홀로 소용을 이어 역학을 통찰했다고 극찬하였고, 『性理大全』과 『邵子全書』를 연구한 위에 서경덕의 『皇極經世數解』를 참조하여 『先天管窺』를 완성하였다.<sup>120)</sup>

서경덕의 역학은 16~17세기 개성 유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개성 사현의 일인으로 서경덕에게 직접 수학한 마희경은 經學을 연구하되 특히 『易』과 『性理大全』을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으며,<sup>121)</sup> 『역』에 깊은 소양이 있었던 사실과 결부된 듯 그가 천시와 인사를 헤아려 50년 후 병자호란이 발생할 것을 예언하였다는 전언도 있다.<sup>122)</sup> 또한 개성 사현의 일인으로 서경덕을 사숙한 이경창도 『易』을 전문으로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고,<sup>123)</sup> 실제로 이경창의 『西村集』에는 「原理氣說」·「天人說」·「周天圖說」·「易卦爻通例」 등 이학·수학·역학에 관한 작품이 현전한다. 이와 관련하여 鄭夢周는 조선 이학의 원조이고 徐敬德은 조선 수학의 원조로 조선의 이학과 수학은 모두 정몽주와 서경덕의 여파인데, 이경창은 『易』과 周敦頤의 학설에 기반하여 理氣說을 연구하고, 『書』와 邵雍의 학설에 기반하여 周天圖說을 연구하였다는 주장이 있다.<sup>124)</sup> 이는 16세기 개성 유학에서 서경덕-이경창의 역학 또는 수학 전통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이와 함께 선조대 개성인 金文豹의 수학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문표의 수학 저술 『柶圖說』은 李瀼의 『성호사설』에 소개되고 있으며, 이 작품의 저자를 김문표로 확인한

119) 徐敬德, 『花潭集』 「花潭先生文集重刊序」(尹塾).

120) 申欽, 『象村稿』 권60, 『先天窺管』 〈跋〉. 신흘의 상수 역학에 대해서는 朴熙乘, 1997 「申欽의 學問과 그 思想史的 位置」 『民族文化』 20, 민족문화추진회; 박희병, 1999 「신흘의 학문과 사상」 『한국의 생대사상』, 돌베개; 서근식, 2004 「象村 申欽의 先天易學에 관한 研究」 『東洋古典研究』 20, 동양고전학회 참조.

121) 朴世采, 『南溪集』 권75, 「北部參奉馬公墓表」.

122)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 〈馬義慶李慶昌〉.

123)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 〈馬義慶李慶昌〉.

124) 李慶昌, 『西村集』 「西村集重刊序」(李學魯) “烏川爲東方理學之祖, 花潭亦爲數學之祖, 厥後理學數學皆其流波. 花潭沒後一紀, 西村先生生焉. 其理氣說則本乎義經而因於濂溪翁, 其周天圖說則祖乎二典而禰乎康節, 庶幾天根月窟手探足躡, 深究萬物一源之妙, 擊蒙百世後學之惠, 果非一方儒賢而已.”



安鼎福은 스스로 편집한 『東儒性理說』에 김문표의 이 작품과 이경창의 『周天圖說』을 함께 수록하였다.<sup>125)</sup> 김문표와 이경창의 작품을 조선 성리학의 주요 업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서경덕의 역학 전통은 17세기 개성 유학에도 지속되었다. 인조대 尹忠甲은 유교 경전에 해박한 저명한 개성 유학자로 尹宣擧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朴世采는 윤충갑의 저술을 읽고 “소시에 개성에 學易 尹先生이 있다고 들었는데 花谷의 遺風을 잇겠다.”고 평가하였다.<sup>126)</sup> 윤충갑의 경학 중에서도 특히 역학이 뛰어나서 서경덕의 역학을 계승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효종대 石之珩은 『송양기구전』 『문사전』에 입전되어 있을 정도로 문명이 있었고 鄭斗卿, 許穆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효종대에 治國의 요건으로 君德을 중시하여 『易』의 64괘 중 君位에 해당하는 五爻를 부연 설명하고 時務를 참고하여 『五位龜鑑』을 완성, 이를 효종에게 진상하였다.<sup>127)</sup> 『오위귀감』은 17세기 개성 역학의 실제 수준과 경세적 성격의 이해에 긴요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성의 역학 전통은 18세기 이후에도 개성 경학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영조대 개성의 대표적 經儒 許增의 경학 저술에는 『易圖說』과 같은 역학 저술이 있었고,<sup>128)</sup> 정조대 개성의 대표적 경유 趙有善의 경학 저술에는 『易本義』·『易傳』·『易學啓蒙』에 관한 經義 탐구가 있었으며,<sup>129)</sup> 조유선의 벗 金益礪도 『易』을 좋아해 경문을 초록하는 한편 星曆推步에 대한 식견도 높았고,<sup>130)</sup> 조유선의 문인 金天復도 『易圖卦說』과 같은 역학 저술을 남겼다.<sup>131)</sup> 尹得觀의 문인 金光汝은 만년에 역학을 전공했는데 그의 역학 실력은 개성 우수 趙鎭寬이 송양서원에서 그의 易論을 듣고나서 예우할 정도로 높았고,<sup>132)</sup> 韓濩의 형 韓濡의

125) 李瀾, 『星湖僊說』 권4, 「萬物門」〈柶圖〉; 安鼎福, 『東儒性理說』 책1, 「雜說」·「周天圖說」.

126)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才行」.

127)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2, 「文詞傳」〈石之珩〉; 石之珩, 『五位龜鑑』 「序」.

128)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才行」.

129) 趙有善, 『蘿山集』 권6, 「經義」〈周易本義〉.

130)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孝子」.

131)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才行」.

132)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才行」.

후손으로 영조대에 필법이 저명했던 韓命相(1702~?)은 日月會次와 二十四氣에 대한 발명이 있었다.<sup>133)</sup>

그러나 18세기 이후 개성의 경학은 역학에 한정되지 않았고 사서오경 전반에 걸쳐 주자학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위에서 허증의 역학을 말했지만 허증의 학문은 이외에도 『中庸釋義』·『發蒙編』·『閔法圖說』·『徹法圖解』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었고,<sup>134)</sup> 허증의 손자 許懋는 『大學中庸圖』를 완성하고 『朱子大全劄疑』 집필을 시도하였다.<sup>135)</sup> 金時鐸의 경우 이기심성론의 탐구보다는 『소학』에 의한 실천을 중시하는 학풍을 유지하는 가운데<sup>136)</sup> 그가 추구하는 주자학의 세계를 五經의 규모와 『近思錄』의 체제와 『大學』의 토대 위에서 『中庸』의 극치와 『周易』의 완성을 이룩하는 것임을 밝혔다.<sup>137)</sup> 나아가 趙有善은 四書와 五經, 近思錄, 朱子語類, 皇極經世書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經義를 연구하여 성과를 남겼고,<sup>138)</sup> 조유선의 문인 金憲基도 『論語』와 『中庸』에 관한 경학 저술을 남겼으며,<sup>139)</sup> 역시 조유선의 문인 韓履源은 朱熹의 『己酉封事』가 고금에 타당한 修齊治平의 大經大法이라고 보고 『己酉封事十條圖』를 완성하였다.<sup>140)</sup> 특기할 점은 崔岫, 車天輅에 비견되는 문망이 있었던 영조대 개성 유생 朴貞幹이 이재 문하에서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고 『經義集解』를 완성했다는 사실이다.<sup>141)</sup> 이는 개성 유학자의 경학 연구가 단행본 저술의 수준으로 상승했음을 일러 준다.

조선시대 개성의 경학에서 역학이 조선전기 이래의 전통적인 분야였다면 禮學은 조선후기에 새로 생성된 분야였다. 숙종대 윤증 문하에서 수학하여 關西夫子의 영예를 들은 金斗文은 사서오경에 밝았지만 특히 예학에 정통하여 常變之節과 疑難之事를 명쾌하게 논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sup>142)</sup> 김두문 이전에 특별히

133)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才行』.

134) 韓敬儀, 『菑西集』 권2, 『新湖許進士請喪通諭』.

135) 金憲基, 『初菴集』 권13, 『崧下許公行狀』.

136)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金時鐸許增〉.

137) 金時鐸, 『梨湖遺稿』 권2, 『參前旨訣』.

138) 趙有善, 『蘿山集』 권5 및 권6, 『經義』.

139) 金憲基, 『初學集』 권6, 『論語諸章說』·『中庸章句記疑五條』.

140) 韓履源, 『基谷雜記』 권1, 『己酉封事十條圖序-并圖』.

141)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才行』.

예학에 정통했다는 세평을 들은 유학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개성 예학의 시작을 김두문에서 구할 수 있을 듯하다. 김두문 이후 예학으로 저명한 인물로 朴仁亨은 禮經의 疑闕處를 변론하고 주석하여 禮說笏記가 그 문하에서 많이 나왔다는 세평이 있었고,<sup>143)</sup> 조유선의 문인 韓光鎭은 예문에 익숙하여 吉凶疑難의 의절이 있으면 모두 한광진에게 질정하였다는 세평이 있었고,<sup>144)</sup> '實行君子'의 세칭을 들은 鄭柔燮은 특히 예학을 탐구하여 손수 예서를 초출하여 서안에 두고 향인이 예를 물으면 순순히 가르쳤다는 세평이 있었다.<sup>145)</sup>

조선후기 개성 예학에서 특기할 일은 정조대 이후 鄉禮와 喪祭禮에 관한 주목할 만한 문헌이 생산되었다는 사실이다. 정조가 『鄉禮合編』을 전국에 반포하여 지방 향속의 통일을 추구하는 가운데 1796년 조유선은 寒泉書社에서 개성의 향사례흥기를 통일하는 작업을 펼쳤고, 김헌기가 이를 계승하여 1820년 『鄉射禮笏記』를 완성하였다.<sup>146)</sup> 또, 조유선의 문인 禹德麟은 예학에 정통하여 喪祭禮에 관한 여러 예설을 널리 채집하고 상례와 변례를 참작하여 『二禮演輯』을 완성하였다.<sup>147)</sup> 『이례연집』은 1891년 金平默의 교정을 거쳐 1926년 발행되었는데, 김평묵은 이 책을 우덕린의 30년 예학 연구의 정수로 보고 '禮一失則爲夷狄, 再失則爲禽獸'라는 程頤의 말을 되새기며 우덕린의 학문이 務本에 힘썼다고 평하였다.<sup>148)</sup> 우덕린은 『이례연집』 이외에도 『二禮祝式纂要』의 예학 저술이 있다.

개성 유학자의 경학 연구가 역학으로부터 사서오경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사서오경을 철학적으로 해설하는 근원적인 학문으로서 理學의 발달이 경학의 발달에 수반되었다. 개성 지역의 낙학 유입은 낙학이 조선후기 최대의 성리학 논변이라 할 수 있는 호락논변의 한 주체였다는 점에서 이미 개성 유학의 이학적 심화를 예견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물론 개성 유학은 낙학의 유입에 앞서 이미 서경덕

142)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才行」.

143)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10, 「增補」.

144)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10, 「增補」.

145)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10, 「增補」.

146) 金憲基, 『初菴集』 권7, 「鄉射禮笏記序」.

147)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10, 「增補」.

148) 『二禮演輯』 「二禮演輯序」(金平默).

과 같은 대유가 배출되어 고유한 이학 전통을 갖추고 있었다. 鄭惟一이 李滉에 들은 바에 따르면 서경덕은 조선 사회에서 처음으로 理氣를 발명한 사람으로 서경덕 이전에 이기론을 지은 학자는 없었다.<sup>149)</sup> 그러나 서경덕의 이기론은 理學이라기보다 氣學에 가까운 것으로 주자학의 전형적인 입론과는 거리가 있었다.<sup>150)</sup> 그리고 서경덕 사후 개성에서 서경덕의 학문적 계승은 개성 사현의 마지막 이경창에서 멈추었고 이경창의 『原理氣說』<sup>151)</sup> 이후 이기론에 관한 저술은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다.

개성 유학의 이와 같은 상황은 18세기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역 사회에 낙학이 유입되면서 경서의 강학과 연구가 활성화되었지만 아직 이기론에 대한 전문적인 저술은 착수되지 못했다. 영조대 개성 유학의 대표자 김시탁도 정조대 개성 유학의 대표자 조유선도 이기론에 관한 저술이나 소품을 짓지는 못했다. 이 점에서 순조대~헌종대 개성의 대유 金憲基가 이기론을 연구하여 『理先氣後說』을 지은 것은 개성 유학사에서 특기할만한 일이다. 서경덕, 이경창 이후 오랫동안 중단된 이학이 부활하였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선기후설」은 理氣는 ‘理爲氣本’에서 유래하는 合而離와 ‘器外無道’에서 유래하는 離而合의 양면이 있음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 理氣不相雜과 理氣不相離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sup>152)</sup> 또 김헌기는 『대학』의 致知를 致良知로 풀이하는 양명학에 대하여 장문의 비판을 남겼는데, 양명학을 程朱의 本天之學과 다른 불교의 本心之學으로 보고 양명학의 ‘認心爲理’는 결국 마음에 준칙이 없어 천리의 실현에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153)</sup> 김헌기의 致良知辨은 후일 김택영에 의해 김택영

149) 鄭惟一, 『文峯集』 권5, 「閑中畢錄」.

150) 예를 들어 서경덕이 華夷 遠近에 적극적으로 전파하라고 말할 정도로 자부심이 높았던 「鬼神死生論」의 경우 그것은 張載의 영향으로 一氣長存을 입설한 것으로 주자학에서 보자면 불교에 가까운 견해라는 비판을 받았다(曹好益, 『芝山集』 권5, 「題徐花潭鬼神死生論後」; 曹好益, 『芝山集』 권6, 「諸書質疑」〈太極圖〉). 16세기 호남의 대유 김인후는 서경덕의 「讀易吟」을 보고 거기에서 ‘頓悟捷徑’의 폐단을 발견하였고, 영남의 대유 이황은 서경덕의 이기론에 대하여 ‘主氣太過’, ‘認氣爲理’를 지적하였다(金麟厚, 『河西集』 부록 권1, 「行狀」; 鄭惟一, 『文峯集』 권5, 「閑中畢錄」).

151) 李慶昌, 『西村集』 「原理氣說」.

152) 金憲基, 『初菴集』 권6, 「理先氣後說」.

의 대표적인 이학 문자로 선별되어 『송양기구전』에 소개되었고, 조선은 물론 중국 성리학에서도 보기 드문 작품이라는 극찬을 받았다.<sup>154)</sup> 이로써 조선후기 개성 유학은 18세기 경학의 부흥을 이룩한 데 이어 19세기 들어와 이학의 부흥에 진입하였음을 볼 수 있다. 서경덕과 김헌기는 모두 개성 유학에서 이학의 시작과 이학의 재개를 상징하는 두 극점이었다.

개성 유학은 김헌기가 활동하던 시기에 다양한 개성 있는 名士들이 배출되어 번영을 구가하였다. 『重軒雜著』의 저자 任相翼은 조유선에게 종유하고 이도중을 사사한 개성 학인으로 博學으로 저명하였다. 그는 천하의 이치에 하나라도 통하지 못한다면 儒의 본뜻인 需世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온갖 학문을 연구하여 天人性命에서 시작하여 兵刑·錢穀·星曆·醫藥·百工之技까지 모두 섭렵하였고 심지어 推占에도 정통했다.<sup>155)</sup> 조유선 문하에서 가장 오래 수학하였고 김헌기와 평생 형제처럼 지낸 韓履源(基谷, 1766~1827)도 개성 있는 유학자였다. 그는 보학에 치력하여 京鄕 諸宗을 두루 찾고 널리 고찰해서 ‘韓氏文獻之主’가 되었고,<sup>156)</sup> 사학에도 일가견이 있어서 『明史』에 의거하여 임진왜란의 역사를 기록한 이색적인 역사 소품 「萬曆援東記」를 지었으며,<sup>157)</sup> 朱熹의 「己酉封事」가 고금에 타당한 修齊治平의 大經大法이라고 보고 그것을 圖로 표현한 「己酉封事十條圖」를 지었다.<sup>158)</sup> 김헌기는 한이원의 학문을 총평하여 ‘通才實學’이라 하였다.<sup>159)</sup>

순조대~헌종대를 정점으로 개성 유학은 점차 학술적으로 경학과 이학이 퇴조하기 시작하였다. 김헌기 이후 김헌기 문하에서 김헌기를 계승하는 대유가 배출되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다. 김헌기의 문인 白圭顯은 經書·程朱書·諸子百家를 섭렵하여 크게 기대를 모았고, 「立志說」·「道體說」·「義利辨說」

153) 金憲基, 『初菴集』 권3, 「答許允衡大學問目」.

154)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金憲基先生〉; 金澤榮, 『重編韓代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金憲基〉.

155)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任相翼〉.

156) 韓履源, 『基谷雜記』 권7, 附錄「處士是憂齋韓公墓誌銘-并序」.

157) 韓履源, 『基谷雜記』 「萬曆援東記」.

158) 韓履源, 『基谷雜記』 권1, 「己酉封事十條圖序-并圖」.

159) 韓履源, 『基谷雜記』 권7, 附錄「處士是憂齋韓公墓誌銘-并序」.

을 지어 김헌기의 도학을 추구하였으나 일찍 별세하였다.<sup>160)</sup> 조유선—김헌기의 뒤를 이어 철종대~고종대에 개성에서 경학을 이끌었던 유학자로 李得英(警拙, 1811~1887)·姜文豹(龍山, 1822~1881)·梁在淳(眞山, 1833~1909)이 있었으나 이들은 학자였다기보다 경학이 쇠퇴하는 가운데 유교 교육에 힘썼던 교육자에게 가까웠다. 당시 개성 유학의 고단한 상황과 관련하여 梁在淳은 자신의 소시, 곧 헌종대에는 개성에서 학문하는 선비가 제법 많았는데 고종대에는 드물다고 인식하였다.<sup>161)</sup> 김헌기 이후 개성에서 俗學이 치성하고 儒門이 사라져 가는 상황에서 강문표가 후학 양성에 매진하여 ‘鄉邦의 탁월한 師範’이 되고, 다시 강문표를 계승하여 양재순이 후학을 지도하여 사림의 모범이 되었다고 하지만,<sup>162)</sup> 김택영이 적절히 논평했듯이 강문표의 실제 업적은 개성에서 講聲이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는 교육적인 것이었고,<sup>163)</sup> 낙학 산림 홍직필로부터 후일 關西夫子가 될 인물이라 하며 학문적으로 촉망받았던 일화와<sup>164)</sup> 비교하면 조금 거리가 있는 결과였다. 그럼에도 서양이 침입하고 유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강문표의 적극적인 강학으로 인해 개성 지역이 마치 ‘十月之陽’처럼 향후 유교 부흥의 뿌리가 되기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었다.<sup>165)</sup> 이득영 역시 功令과 詩賦에 휩쓸려 성리학이 추락해가는 현실에서 讀書修行한 유학자로 평가되었다.<sup>166)</sup>

### 3) 文學의 번영과 지역 전통의 집성

김헌기 이후 개성 유학의 무게 중심은 점차 경학에서 문학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김헌기가 개성 이학의 최고 수준에 도달하여 명성을 얻었다면, 김헌기의 매

160) 崔南善 編修, 『中京誌』 권8, 「才行」.

161) 梁在淳, 『眞山集』 附錄「行狀」, “此府吾少時, 文學之士, 俊偉之材, 磊落相望, 若隨才器用, 足以充備公卿大夫之位, 挽近漸不如古, 今也端的可以指擬者甚鮮, 世道衰替, 人物渺然, 一至于時哉.”

162) 梁在淳, 『眞山集』 「眞山先生文集序」(崔在道).

163)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姜文豹〉.

164) 위와 같음.

165) 金平默, 『重菴集』 권47, 「龍山姜公墓誌銘」.

166) 李得英, 『警拙集』 「序」(朴寅澈).

부 韓在濂(心遠子, 1775~1818)은 아버지 韓錫祐 및 형 韓在洙, 아우 韓在洛과 함께 한양에 우거하며 詩作으로 크게 명성을 얻었다.<sup>167)</sup> 한재렴은 예학과 사학에도 일가견이 있어서 『甲乙問對』와 『高麗古都徵』의 저술을 남겼는데, 전자는 주로 廟制·堂室·昭穆·明堂·學校·姓氏族·跪坐拜 등에 관해 논한 예학 저술로 『西原家稿』에 수록되었고,<sup>168)</sup> 후자는 고려의 수도 개경에 대해 宮殿·公廡·寺刹·太學 등에 관해 고증한 사학 저술로 풍양 趙門의 지원을 받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처럼 詩·禮·史에 밝았던 한재렴의 학문에 대해 이견창과 김택영은 ‘西京古文三禮之學’이라 칭했고,<sup>169)</sup> 李正履는 한재렴이 ‘毛鄭詩春秋三禮’를 전공하였다고 칭했다.<sup>170)</sup> 한재렴은 한석호가 朴趾源에게 종학한 인연으로 한양에서 박지원의 처남인 李在誠에게 종학하고 朴趾源·丁若鏞·申緯 등과 교류하였으며 서울의 선비들과 벌인 藝戰에서 곧잘 수석을 차지하고 급기야 정조의 지우를 받음으로써 한양에서 개성 사인의 명성을 드높였다.<sup>171)</sup> 한재렴과 더불어 정조대 한양 문단에서 시명이 높았던 인물이 車左一(四名子, 1753~1809)이었다. 차좌일은 車天輅의 6대손으로 시작이 뛰어나 洪良浩·尹行恁·尹師國·丁若鏞 등에게 초청을 받아 시회에 참석하였고, 崔北·千壽慶·張混·王太 등과 함께 松石園에서 詩社를 결성하여 詩作 활동을 펼쳤다.<sup>172)</sup> 정조대에 왕명으로 차천로의 문집이 출간되었음을 고려할 때 차천로의 후손 차좌일이 한양에서 송석원 시사의 주요 회원으로 활동한 것은 개성 문학이 중앙에서 주목 받는 뜻깊은 일이었다고 하겠다.

정조대 이후 서울에서 적극적으로 시작 활동을 하며 경화학계에서 시명을 떨쳤던 차좌일과 한재렴의 뒤를 이어 19세기 개성 사회에서는 다시 한재렴의 문인 李祖憲(蓮士, 1796~?), 한재렴 이후 개성 문단을 빛낸 朴文達(天游, 1805~1888)가 배출되어 역시 경화학계에서 시명을 떨치며 개성 문학의 명성을 이어갔

167)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2, 「文詞傳」〈韓在濂〉; 『西原家稿』 「心遠子傳」(李建昌).

168) 『西原家稿』 권4, 「心遠子文鈔」〈讀書甲乙問對〉.

169)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2, 「文詞傳」〈韓在濂〉; 『西原世稿』 「心遠子傳」(李建昌).

170) 『西原家稿』 「蕙園韓公墓誌銘」(李正履).

171) 『西原家稿』 「蕙園韓公墓誌銘」(李正履) · 「心遠子傳」(李建昌).

172) 車佐一, 『四名子詩集』 「行狀」(呂圭亨).

으며, 급기야 박문규 이후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춘 金澤榮(滄江, 1850~1927)이 등장함으로써 개성 문학은 그 정점에 도달하였다. 이들 이조헌·박문규·김택영은 지역 사회는 물론 중앙의 경화학계에서 문학적 성취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개성 문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중국을 직접 견문하거나 중국 문단에 소개되거나 중국 문사와 교류함으로써 車天輅 이후 오랜 동안 약화된 개성 문단의 국제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이 가운데 이조헌은 어려서 한재렴에게 수학하고 장성하여 한양에 가서 申緯에게 격려를 받았고 尹定鉉과는 막역한 교분을 쌓았다.<sup>173)</sup> 신위는 이조헌에 대해 ‘삼백 년에 한번 있을 선비’라고 하였고, 丁若鏞은 ‘不世出의 천재’라고 하였으며,<sup>174)</sup> 윤정현은 ‘志氣와 文章으로 一邦의 으뜸’이라고 하였다.<sup>175)</sup> 이조헌의 시풍에 대해 김택영은 白居易의 여운이 있다고 평하였고, 당대에 회자된 이조헌의 시는 대부분 科詩였지만 그 詩調가 일반 거자들의 작품과 절대 같지 않다고 보았다.<sup>176)</sup> 이조헌은 작시에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音學 일반에 대해 상당한 조예가 있었으며 漢宋折衷의 학술적 시각에서 聲音의 도와 事理의 도의 상통성을 주장하였다.<sup>177)</sup>

박문규는 처음 農圃를 경영하다 40세 이후에야 시를 본격적으로 연마하여 경화학계의 시회에 자주 참석하였다. 그는 근체시에 뛰어났고 고시 수만 편을 외웠으며 탁월한 古詩 集句 능력으로 金正喜를 필두로 경화사족의 시회에 자주 초청 받은 ‘一代 鴻匠’이었다.<sup>178)</sup> 또한 그는 漢魏에서 明清까지 제가의 시작을 두루 섭렵하였고 三唐에 출입하는 富麗爛熱한 시풍을 지녔으며, 趙斗淳과 申錫禧 등 경화사족들로부터 자주 칭찬을 들은 ‘一代 宗匠’이었다.<sup>179)</sup> 김택영은 박문규의 율시가 ‘平淡融秀’하다고 평하였고, 박문규와 동시기 저명한 개성 문인으로 白膺絢·白岐鎭·全弘瑄이 있었으나 ‘雅馴成家’로는 박문규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sup>180)</sup>

173) 金澤榮, 『重編韓代崧陽耆舊傳』 권1, 「文詞傳」〈李祖憲〉.

174) 李祖憲, 『蓮士遺稿』附錄「言行錄」.

175) 李祖憲, 『蓮士遺稿』「蓮士先生遺稿序」(金學性).

176) 金澤榮, 『重編韓代崧陽耆舊傳』 권1, 「文詞傳」〈李祖憲〉.

177) 李祖憲, 『蓮士遺稿』 권2, 「簡尹奉朝賀-定鉉」 7면.

178)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2, 「文詞傳」〈朴文達〉.

179) 朴文達, 『天游先生集古』 「題辭」(朴南澈).



조선후기 개성 문학의 대미를 장식하는 김택영은 개성 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시명을 드날린 조선말기의 저명한 시인이었고, 조선시대 개성의 유학 전통을 정리하여 지역 사회를 문화적으로 크게 현창한 개성인이었다. 김택영은 시재가 뛰어나 盛唐體의 시를 잘 지어 李建昌으로부터 詩神이라는 감탄을 들었고,<sup>181)</sup> 王性淳으로부터는 神韻을 높이고 陳腐를 없애 ‘동방 천 년 이래 絶響’이라는 칭송을 들었다.<sup>182)</sup> 李箕紹는 김택영의 문재를 ‘華國巨手’라고 기리며 그 성품이 申緯 및 朴趾源과 서로 비슷해 신위의 시와 박지원의 문을 추존했다고 평했는데,<sup>183)</sup> 실제 김택영은 신위의 시집과 박지원의 문집을 출판하는 문화운동에 힘을 쏟았다.<sup>184)</sup>

김택영은 조선시대 한문학의 시각에서 그 문학사적 위상을 규명할 수도 있지만, 조선후기 개성 유학사의 관점에서는 개성 유학 전통을 현창하려 했던 그의 노력에 상대적으로 각별한 관심이 부여될 수 있다. 그는 1881년 개성의 여러 문사들과 협력하여 조선후기 개성의 대유 김헌기의 문집을 출간하였다. 김헌기가 서경덕과 함께 조선시대 개성 성리학의 대표자이며 조유선과 더불어 조선후기 개성의 대유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김택영은 朴載鉉(栢堂, 1852~1911)·崔中建(希堂, 1853~1933) 등과 더불어 김헌기의 문집을 교정하여 1881년 최종적으로 『初菴集』을 인행하는 작업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sup>185)</sup> 이진창에게 문집에 들어갈 김헌기의 묘지명을 찬술할 것을 부탁하여<sup>186)</sup> 고종대 김헌기

180)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2, 「文詞傳」〈朴文達〉.

181) 林鳳植, 『開城誌』 권6, 「才行」〈金澤榮〉.

182) 『滄江先生實紀』 권1, 「題滄江先生甲午詩稿後」.

183) 『滄江先生實紀』 권2, 「遺事」.

184) 金澤榮, 『韶護堂集』 권2, 「申紫霞詩集序」; 金澤榮, 『韶護堂集』 권3, 「重編燕巖集序」; 『燕巖集』 「跋」(金澤榮).

185) 金憲基, 『初菴集』 「年譜」 辛巳條. 김헌기의 문집은 김헌기의 자편고 『男山舊稿』 및 김헌기 사후 김헌기의 사위 白膺鎭과 문인 金梯五, 白一顯 등이 편집한 『男山續稿』를 합하여 『초암집』이 가장되어 있었는데, 이 해 김택영·박재현·최중건 등이 교정하여 14권을 만든 것이다. 韓時赫·朴天鳳·金澄樂·張時淳도 이 작업에 참여하였다.

186) 金憲基, 『初菴集』 附錄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堯泉金先生墓誌銘-并序」, (李建昌).

의 학문을 세상에 공표하는 사업에 헌신하였다.

김택영은 김헌기의 문집 간행 사업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한재림의 문집 간행 사업도 주도하였다. 한재림이 김헌기의 매부로 조선후기 경화세계에서 인정 받은 개성 문인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재림의 증손 韓東赫·韓時赫이 한재림 3형제와 한재림의 부친 한석호의 문집을 합간할 계획을 세우자 여기에 찬동하여 김택영은 역시 朴載鉉·崔中建 등과 더불어 이들 문집을 모두 수합하고 교정해 1882년 『西原家稿』의 인행을 완료하였다.<sup>187)</sup> 김헌기의 『초암집』이 출간된 직후 한재림 등의 『서원가고』가 출간되었다는 사실, 『초암집』의 교정을 담당한 김택영, 박재현, 최중건 등이 똑같이 『서원가고』의 교정을 담당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초암집』 간행을 위해 김택영의 부탁으로 이견창이 김헌기의 묘지문을 지었듯이 『서원가고』에 들어간 이견창의 『心遠子傳』 역시 김택영의 부탁으로 지은 한재림의 전기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이처럼 김택영이 1880년대 초 조선후기 개성 유학사에서 理學과 文學의 핵심을 차지하는 김헌기와 한재림의 문집 출간 작업을 실질적으로 완수했다는 사실은 여러 모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는 김택영이 1880년대 이학과 문학을 아울러 개성 유학의 유력한 인물로 크게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김택영은 1870년대 이견창과 결교한 뒤 개성 지역은 물론 경화 세계에서 크게 문명을 떨치고 있었는데, 1880년대 김택영이 지역 문인 및 중앙 문인과 교유했던 양상은 『金氏史補』를 통해 확연히 드러난다. 『김씨사보』는 김택영이 고려말 만수산에서 은둔한 선조 金勳의 기이한 사적을 김택영 당대의 문인들에게 전해 주고 이에 대한 시문을 받아 김훈의 史實을 보완한 책자이다.<sup>188)</sup> 이 책에는 李應辰의

187) 『西原家稿』 『跋』(韓東赫). 한동혁의 발문은 1881년 작성된 것이지만 문집 출판은 趙寧夏의 서문이 작성된 1882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88) 김훈의 기이한 사적이란 김훈이 만수산에 은둔하여 꽃을 심었는데 오색의 매화가 사철에 꽃피었던 일을 가리킨다. 이것은 鄭夢周가 흘린 선죽교의 피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은 사실, 그리고 趙狷의 유언을 어기고 그의 자손이 조건의 묘비에 조선왕조에서 하사한 벼슬을 기입하자 묘비에 벼락이 떨어졌다는 사실과 더불어 麗季三絶이라 일컬었다(『金氏史補』 『高麗金詹事本傳』). 『김씨사보』의 원고 수합은 김택영의 서문이 작성된 1881년까지는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李應辰의 서문이 작성된 1883년까지는 이 책의 서발이 모두 확보되었으며, 실제 이 책이 출간된 것은 이 책에 실린 『先蹟辨』

서문, 韓章錫과 金鶴鎭의 발문, 朴文鎬의 전기, 李象秀·金允植·李建昌·李建初·成蕙永·呂圭亨 등의 시가 수록되어 있어서 김택영이 교유했던 경화학회 명사들의 범위를 알 수 있다.<sup>189)</sup> 또, 白英洙의 발문, 朴文遠·李命喆·李珏·白膺綸·尹鎭佑·李榮坤·崔中建·吳容默 등의 詩와 具重協의 賦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김택영이 교유했던 개성 지역 문인들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중에서 개성 문단의 원로 박문규, 개성에서 박문규와 동시기 시명이 높았던 백응현, 개성에서 박문규의 대표적 후진으로 손꼽힌 윤진우·최중건 등에 대해서는 김택영의 『승양기구전』에서도 19세기 개성 문인으로 이름이 확인된다.<sup>190)</sup> 최중건이 김택영과 더불어 김헌기와 한재림의 문집을 교정하고 출간하는 작업에 참여했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이다.

이렇듯 1880년대 전반 김택영은 개성 문단 및 경화 학계의 명사들과 결교하며 고려말 김훈의 사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였고, 조선후기 개성 유학의 핵심적 인물인 김헌기와 한재림의 문집을 출간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사업에 뒤이어 1880년대 후반에는 「麗季忠義逸士傳」과 「崧陽耆舊傳」을 완성하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개성의 역사문화 전통과 관계된 인물들의 행적을 조명하였다. 「여계충의일사전」은 김택영의 찬술과 金信榮·王性淳의 교정으로 완성되었고, 「승양기구전」은 김택영의 찬술과 朴載鉉·金重熙·張漢炯·秦永濂·林圭永·韓承履의 교정으로 완성되었는데, 양자는 1896년 김신영의 재정적 지원으로 『승양기구전』으로 합본되어 출간되었다.<sup>191)</sup> 이 두 작품의 완성의 조력자 중에서 王性淳·秦永濂·林圭永·韓承履는 모두 김택영의 문인으로 생각되는데, 이 가운데 특히 왕성순(敬菴, 1869~1923)은 김택영의 시제자로 김택영이 편집한 『여한구가문초』에 김택영의 작품을 포함한 『여한십가문초』를 편찬하였고, 임규영(荊山, 1869~

이 작성된 1884년 7월 이후로 보인다.

189) 李建初는 李象秀의 아들이고 朴文鎬는 李象秀의 문인으로 모두 湖西 懷仁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상수가 충청도 회인으로 이주하기 전에 한양에서 경화학계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음을 돌아볼 때 이진초와 박문호도 넓은 의미에서 경화학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190)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2, 「文詞傳」〈朴文遠〉.

191) 『승양기구전』의 제명으로 합본되어 출간된 이 작품들은 김택영의 서문(1888년)과 이진창의 발문(1885년), 이응익의 발문(1890년), 김신영의 발문(1896년)이 있다.

1908) 역시 김택영의 시제자로 별도로 김택영의 시선집 『雲山韶護堂詩選』을 편찬하였다.<sup>192)</sup> 김택영은 이들 문인들의 도움을 받아 개성의 문화 전통을 조선 사회에 천명한 것이다.

김택영은 『승양기구전』을 완성한 데 이어 『승양기구시집』의 편찬에 착수하였다. 조선시대 개성의 문학 전통을 별도로 현창하려는 의도였다. 이 책은 馬權輯, 金澤榮 修輯, 林光潤 參訂, 張始淳 參訂에 의해 본문이 완성되었고 왕성순의 발문에서 보듯 김택영이 중국으로 망명하여 완결되지 못한 것을 김택영의 부탁으로 왕성순의 책임 하에 개성 문인들의 합심으로 완성한 것이다. 이 책에는 徐敬德부터 黃眞까지 개성 사람 61인의 시 337수가 실려 있다. 10수 이상의 시가 수록된 인물을 차례로 열거하면 林昌澤(39) · 車天輅(24) · 韓在濂(18) · 車雲輅(17) · 金憲基(17) · 朴文遠(16) · 曹臣俊(15) · 石之珩(11) · 金練光(11)과 같은데, 김헌기와 김연광을 제외하고 모두 김택영의 『승양기구전』 『문사전』에 입전된 인물들이다. 여기서 김헌기의 작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서 보듯 김택영은 김헌기의 性理 문자 뿐만 아니라 詩作까지 존승하였음을 볼 수 있다.

『승양기구전』은 『문사전』의 마지막 인물로 박문규를 입전했지만 『승양기구시집』에는 박문규 이후의 시인들의 작품도 수록하고 있어서 박문규와 김택영 사이 개성 지역에서 시명이 있던 문인들의 운곽을 일별할 수 있다. 즉, 白膺絢(愚南, 1808년생) · 白岐鎭(謙齋, 1814년생) · 李珪(蓮史, 1824년생) · 金鍾(杏亭, 순조말 출생) · 林輔永(青坪, 1836년생) · 李莘田(雨堂, 1836년) · 金載熙(秋澗, 1840년생) · 尹鎭佑(青史, 1843년생) · 朴元珪(蕙山, 1847년생) · 朴南澈(石堂, 1850년생) · 具重協(玉山, 1854년생) · 徐昌東(存齋, 1855년생)이 이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김택영의 『승양기구전』 『문사전』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거나, 김택영의 『김씨사보』, 朴文遠의 『天游詩集』 등에서 이름이 확인되는 개성 문인으로 19세기 후반 개성

192) 『滄江先生實紀』 권1, 「金于霖詩論贈林有瑞」. 임규영이 선별한 김택영의 시선집의 일부인 『雲山韶護堂詩選』이 현전한다(국립중앙도서관 古3644-10). 이 책은 임규영이 선별한 김택영의 시선으로 초기 김택영 시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고, 김택영 시에 대한 이 건창의 시평이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료 가치가 높다(김덕수, 2009 『寧齋 李建昌의 漢詩 批評 研究-『雲山韶護堂詩選』을 중심으로-』 『한국한시연구』 17, 한국한시학회).

사회의 저명한 지역 문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193)</sup>

김택영이 편찬한 『승양기구전』과 『승양기구시집』은 지역 문인들의 도움을 얻어 조선시대 개성 문화의 핵심을 집성한 책자이다. 그는 조선후기 개성의 최고 명사 김헌기와 한재림의 문집 출간 작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고종대 조선 사회에 개성 유학의 정화를 제시하는 한편 나아가 『승양기구전』과 『승양기구시집』을 편찬함으로써 조선 유학의 일부로서 개성의 유학 전통을 역사적으로 정리하는 사명을 담당하였다. 이것은 정조대 개성의 대유 조유선이 서경덕 문집의 완결판을 출간하고 서경덕 이후의 개성 사헌을 확정하여 사헌별묘를 건립함으로써 지역 유학 전통을 창출한 것에 비견되는 일이었으며, 조선시대의 황혼기에 개성의 유학 전통을 천명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문화적 활력을 고취한 특별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김택영 1인의 단독 작업이 아니었고 김택영에게 협력했던 지역 문인들의 힘이 지대하였다. 여기에는 김헌기와 한재림의 문집 교정에 참여한 朴載鉉과 崔中建, 『승양기구전』의 교정에 참여한 金信榮 · 王性淳 · 朴載鉉 · 金重熙 · 張漢炯 · 秦永濂 · 林圭永 · 韓承履, 『승양기구시집』의 수집과 참정에 참여한 馬權, 林光潤, 張始淳 같은 인물들도 있었지만, 『崧陽耆舊詩集同刊錄』에서 보듯 문집 출간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인물들도 적지 않았다. 이 인명록에는 개성 군수 朴宇鉉, 시종원 분시종 金鎭九, 의릉 참봉 孔聖學 등 개성 실업의 거물들도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孔聖學과 더불어 金謹鏞 · 朴守林 등 20세기 전반 개성의 주요 문인들도 기재되어 있다.<sup>194)</sup> 김택영의 개성 전통 만들기에 개성 지역의 유지들이 적극적으로 합심하여 협력하는 인상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다.<sup>195)</sup>

193) 白膺絢과 白岐鎭은 박문규의 동시대인, 金載熙와 尹鎭佑와 徐昌東은 박문규의 후진으로 『崧陽耆舊傳』 『文詞傳』에서 거론된 저명한 개성 시인이다. 또 李珪과 具重協은 박문규 · 백응현 · 윤진우 등과 함께 金澤榮의 『金氏史補』 제작에 참여한 개성 문인이었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이다. 朴元珪는 박문규의 족손이고 朴南澈은 박문규의 후진으로 양자 모두 박문규의 『天游詩集』 편찬과 『天游集古』 간행에 기여한다.

194) 『崧陽耆舊詩集同刊錄』의 전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 金思默(京畿觀察使), 朴宇鉉(開城郡守), 金麗煌(秘書監丞), 金鎭九(侍從院 分侍從), 韓廷鎬(中樞院 議官), 金壽榮(永同縣監), 孫錫權(恭陵令), 朴遠炯(鐵山郡守), 朴守林(刑曹正郎), 金謹鏞(豐慶宮 參書官), 鄭載東(成均 進士), 高漢周(成均 進士), 金宗煥(成均 進士), 崔基肇(成均 進士), 孔聖學(懿陵 參奉).

#### 4. 맺음말

이상으로 지역 지성사의 관점에서 조선후기 개성의 유학 전통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지성사 연구에서 지역성을 고려한 연구는 대체로 유학사 또는 사상사의 맥락에서 설정된 광역의 지역성에 입각한 지역적 접근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특정한 군현 단위의 지역 지성사 연구는 아직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하였다. 이 글은 조선시대 개성이라는 지역이 한국 근대 유학사 저술에서 지방학계의 성장과 관련하여 특기될 정도로 유학사적 지역성을 인정받고 있고 또한 조선시대 상업이 발달한 도시로서 독특한 역사적 지역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지역 지성사를 시도한 것이다.

먼저 개성의 유학 전통에 곧바로 접근하기 앞서 조선 말기 개성 문인 金澤榮과 王性淳으로부터 개성 유학사의 기본적인 이해방식을 고찰하였다. 『崧陽耆舊傳』에서 피력된 김택영의 관점에 따르면 개성 유학은 16세기 徐敬德이 화담학파를 개창한 이후 특별히 주목받는 經儒가 등장하지 못하다가 18세기 洛學이 지역적으로 전파되는 가운데 낙학의 종장들에게 수학한 유학자들이 배출되면서 유학 전통이 강화되었고 급기야 19세기에 들어와 金憲基가 일어나 개성 유학을 대표하였다. 김택영은 개성 성리학의 시작과 종결로서 서경덕과 김헌기를 강조하였고, 김택영의 문인 王性淳은 이 독법을 계승하여 ‘徐敬德—李滉—李珥—宋時烈—金憲基’의 ‘五賢’으로 구성된 『朝鮮五賢文鈔』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서경덕과 김헌기는 개성 성리학의 두 극점인 동시에 조선 성리학의 두 극점을 체현하는 존재가 되었다.

조선시대 개성 유학사는 『中京誌』와 『開城誌』에서 개성의 원우에 입향된 인물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개성에서 지역적 전통이 반영되어 원우가 건립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다. 19세기 최초의 원우는 四賢別廟(1804년, 馬義慶·韓舜繼·金玄度·李慶昌 입향)인데, 여기에 입향된 인물들은 개성 지역에서 서경덕 이후 서경덕을 계승하는 지역 학인으로 공인된 四賢이었다. <제1단계>. 사현별묘 다음에 건립된 원우는 崧南社(1817년, 金滉·金漬·金濡·林昌澤·張昌復·李春

195) 盧官汎, 2014 『金澤榮과 개성 문인』 『민족문화』 43, 한국고전번역원.

韓·金致洪 입향)와 男山社(1818년, 金履祥·金履度·金斗文·張玄聞 입향)인데, 여기에 입향된 인물들은 16~18세기 개성 지역의 주변적이고 과도기적인 다양한 인물들이었다. <제2단계>. 남산사와 송남사 다음에 건립된 원우는 차례로 新湖社(1818년, 許增 입향)·蘿山社(1822년, 趙有善 입향)·堯泉社(1850년, 金憲基 입향)·梨湖社(미상, 金時鐸·禹昌洛 입향)·龍陰社(1856년, 高敬恒 입향)인데, 이들 원우에 입향된 인물들은 18세기 이후 낙학의 학문적 입지에서 개성 유학의 경학적 번영을 이룩하고 나아가 독자적인 개성 경학을 실현한 유학자들이었다. <제3단계>. 흥미롭게도 19세기 개성 원우의 시기별 건립 순서는 조선시대 개성 지역 유학사의 역사적 단락과 일치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곧 원우 건립에서 <제1단계> 사현별묘 단계는 개성 유학사에서 서경덕을 계승하는 사현이 등장한 시기, <제2단계> 송남사와 남산사 단계는 개성 유학사에서 사현 이후 낙학 유입 이전의 과도기, <제3단계> 신호사~용음사 단계는 개성 유학사에서 낙학의 유입과 경학의 부흥 시기이다.

개성 유학사 검토에 이어 개성 유학 전통의 실제 양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개성 유학은 18세기 낙학이 유입되기 전 대체로 유교적인 가풍의 전승이러는 형태로 존재하였다. 선조대 韓今香과 그 후손들인 韓敬素·韓敬儀 등의 사례에서 보듯 조선전기 '家庭淵源'을 배경으로 성리학에 착수한 개성 사인의 후손들이 조선 후기 대대로 효자로 포증되며 유학자로 성장하고 있었다. 개성 사현 역시 馬義慶·韓舜繼·金玄度·李慶昌의 각각의 후손들이 개성 사회에서 유교적 명망을 유지하며 가문의 전통을 지속하고 있었기에 선조대에 들어와 사현으로 확정될 수 있었다. 개성에서 유학 전통의 형성은 世稿의 출간과 家學의 형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金履祥의 『心適堂遺稿』와 김이상의 아들 金鍊光의 『松巖遺稿』, 그리고 윤증 가문에서 '關西夫子'의 칭호를 얻은 金斗文의 『敬勝齋遺稿』가 합본되어 『心適堂松巖敬勝齋遺稿』가 영조대에 출간된 것은 조선후기 개성 지역에서 세고의 출현으로 주목할만한 사건이었다. 가학의 형성은 18세기 낙학 유입 이후 경학의 부흥과 관련있는 현상인데, 대표적인 사례로 趙有善·趙綱溫·趙鼎休의 3대 가학과 張玄聞·張鵬逸·張錫五의 3대 가학이 주목된다.

개성 사회는 18세기 이후 적극적으로 洛學과 학연을 맺으며 다양한 유학 전통

이 형성되었다. 개성 사인은 개성에서 鄉師를 정하고 중앙에서 京師를 정하여 지방과 중앙의 양방향에서 소통하며 지역 사회의 유학 전통을 강화해 나갔다. 개성 사인들은 李緯 문하(金時鐸·許增·朴貞幹·禹昌洛), 이재의 문인 李宜哲 문하(林游·林洵), 金元行 문하(趙有善·趙有憲·趙綱溫·禹昌洛), 金履安 문하(馬游·張鵬逸), 吳熙常과 洪直弼 문하(趙鼎休·金聲大·金煥亨·金觀亨·張錫五·文尙鈺)에 나아갔는데, 이들 문하는 18~19세기 낙학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宋煥箕 문하에 나아간 許懋, 李度中의 문하에 나아간 任相翼의 사례에서 보듯 모든 개성 사인이 낙학에만 연결되었던 것은 아니다.

낙학이 유입된 후 개성에서는 성리학 講會가 활발히 일어나고 지역 유학 전통이 창출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강회로는 金時鐸의 槐泉書堂 및 梨湖書堂 강회, 張玄聞·李春鞞 등의 崧南社 강회, 趙有善의 崧陽書院 및 校宮 강회, 金憲基·金尙欽·韓履源·金天復 등의 聚學會 강회 등이 있었다. 강회의 전통이 없던 崧陽書院에 金元行이 원장으로 초빙된 후 새롭게 講規가 마련되어 趙有善에 의해 강회가 열린 것은 개성 성리학의 중흥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조유선은 정조~순조 연간 개성 제일의 대유로서 지역 유학 전통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개성 유학의 상징적 존재인 徐敬德의 『花潭集』의 마지막 완결판을 간행하는 사업을 馬之光과 주도하여 이를 성사시켰고, 서경덕 이후 서경덕을 계승한 개성의 鄉賢들을 馬義慶·韓舜繼·金玄度·李慶昌 4인으로 확정하여 四賢別廟를 건립하였다.

18세기 개성 유학의 번영은 개성 유학의 경학적 전환을 초래하였다. 종래 개성 유학은 徐敬德의 易學 또는 數學을 특색으로 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개성의 역학 전통은 16~17세기 馬義慶·李慶昌·尹忠甲·石之珩 등을 통해 단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석지형이 완성한 『五位龜鑑』은 17세기 개성 역학의 실제 수준과 경세적 성격의 이해에 긴요한 작품이다. 또한 개성의 수학 전통 역시 李慶昌, 金文豹 등에 의해 확인되는데, 김문표의 『栖圖說』은 安鼎福의 『東儒性理說』에 편입될 정도로 학술적 가치를 평가받았다. 이와 같은 개성의 역학 전통은 18세기 이후에도 지속되어 許增의 『易圖說』이나 金天復의 『易圖卦說』 등의 역학 연구가 출현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개성의 경학은 사서오경 전반에 걸친



주자학적 연구를 특징으로 하였다. 許增의 『中庸釋義』, 許懋의 『大學中庸圖』, 韓履源의 『己酉封事十條圖』 등이 출현하였고, 趙有善은 四書五經, 近思錄, 朱子語類, 皇極經世書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經義를 연구하였다. 특기할 점은 許懋가 『朱子大全筭疑』 집필을 시도하였고, 朴貞幹이 단행본 저술 형태로 『經義集解』를 완성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조선후기 개성 성리학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예학의 발달도 병행되었다. 숙종대 윤증 문하에서 관서부자의 영예를 들은 金斗文은 개성 예학의 개척자로 생각되며, 김두문 이후 朴仁亨·韓光鎭·鄭柔燮 등이 예설에 밝았다. 개성 예학에서 특기할 일은 정조대 이후 鄉禮와 喪祭禮에 관한 주목할 만한 문헌이 생산되었다는 사실이다. 정조가 『鄉禮合編』을 전국에 반포하여 지방 향속의 통일을 추구하는 가운데 1796년 조유선은 寒泉書社에서 개성의 향사례홀기를 통일하는 작업을 펼쳤고, 김헌기가 이를 계승하여 1820년 『鄉射禮笏記』를 완성하였다. 또, 조유선의 문인 禹德麟은 예학에 정통하여 喪祭禮에 관한 여러 예설을 널리 채집하고 상례와 변례를 참작하여 『二禮演輯』을 완성하였다.

조선후기 개성 사회에서 경학의 발달은 이학의 부흥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서경덕 이후 개성 사회는 오랫동안 이학 연구가 중단되어 있었다. 서경덕의 학적 계승은 개성 사헌의 마지막 이경창에서 멈추었고 이경창의 『原理氣說』 이후 이기론에 관한 저술은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다. 낙학 유입 이후 김시탁도 조유선도 전문적인 이기론 연구에 착수하지는 못했다. 이 점에서 김헌기가 『理先氣後說』을 지어 理氣不相雜과 理氣不相離의 원리를 설명한 것은 개성 유학사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서경덕과 김헌기는 모두 개성 유학에서 이학의 시작과 이학의 부흥을 상징하는 두 극점이었다.

김헌기 이후 개성 유학의 무게 중심은 점차 경학에서 문학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김헌기의 매부 韓在濂은 정조대에 한양에 우거하며 詩作으로 크게 명성을 얻었다. 한재림의 부친 韓錫鎬가 燕巖峽에 우거한 朴趾源에게 종학한 인연으로 한재림은 한양에서 박지원의 처남 李在誠에게 종학하고 경화세계에서 개성 문인의 문명을 드날렸다. 車天輅의 6대손 車佐一도 역시 정조대에 한양에서 시명을

떨쳤는데 그는 崔北·千壽慶·張混·王太 등과 함께 松石園 시사의 주요 동인이었다. 이후 19세기 개성 문단에는 李祖憲·朴文瀟·金澤榮 등이 차례로 등장하여 개성 문학은 그 정점에 도달하였다.

이 가운데 김택영은 개성 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시명을 드날린 조선말기의 저명한 시인이었고, 조선시대 개성의 유학 전통을 정리하여 지역 사회를 문화적으로 크게 현창한 개성인이었다. 그는 1881년 黃花社 동인인 朴載鉉·崔中建 등과 함께 개성의 대유 김헌기의 문집을 교정하여 최종적으로 『初菴集』을 이행하는 작업을 주도하였다. 김택영은 후일 조국이 광복되면 김헌기를 文廟에 종사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김헌기의 성리학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다. 아울러 그는 박재현·최중건과 더불어 한석호 및 한재수·한재렴·한재락 형제의 문집을 모두 수합하고 교정해 1882년 『西原家稿』의 인행을 완료하였다. 나아가 그는 『崧陽耆舊傳』과 『崧陽耆舊詩集』을 편찬하여 개성의 역사와 문학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정조대~순조대 조유선이 『화담집』의 완결판을 만들고 송양서원의 강회 전통을 만들고 개성 사현을 확정하여 개성의 지역 전통을 일신했다면, 고종대 김택영은 개성 문인의 협력으로 『초암집』, 『서원가고』, 『송양기구전』, 『송양기구시집』 등을 완성함으로써 지역 문화 전통의 집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개성 지역의 지성사적 지역성은 주로 실학과의 연계에서 접근되고 있었다. 여기에는 조선후기 개성이 상업도시로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 개성 지역 지성사의 실제 상황은 실학의 발흥이라기보다 서경덕 이후 오랫동안 미미했던 성리학 전통의 재개였다고 보는 편이 합당하다. 즉 개성은 지역 단위 유학 전통의 형성에 있어서 영남이나 기호에 비해 후발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고, 조선후기 상대적으로 뒤늦게 형성된 유학 전통을 배경으로 근대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근대 개성 지역의 대표적인 실업가인 공성학이 한편으로 개성 성균관을 거점으로 개성 유림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것은 조선후기 도시 지역에 형성된 뒤늦은 유학 전통이 근대 사회와 결합하는 적절한 사례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조선후기 지성사는 대개 이미 형성된 조선의 성리학 전통에서 실학이라는 역사적 변용이 발생하는

맥락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개성의 사례에서 보듯 지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조선후기에 성리학 전통이 형성되어 근대를 맞이할 수도 있었다. 지역 단위에서 본다면 조선후기는 유학 전통의 '형성사'로서 새롭게 독해될 수 있으며, 그것은 거시적으로 대한제국기 지역 사회 신교육운동의 역사적 배경으로 독해될 수도 있다. 조선후기 개성의 유학 전통은 개성 이외의 다른 도시 지역의 유학 전통과 비교함으로써 지성사적 지역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개성, 유학, 조선, 낙학, 지역성

투고일(2014. 4. 28), 심사시작일(2014. 5. 14), 심사완료일(2014. 6. 6)

〈부표〉 金澤榮이 지은 『崧陽耆舊傳』 『學行傳』에 立傳된 개성 유학자 일람

#	인물	본관	자	호칭	향사	스승	교유	제자	저술
1	徐敬德	唐城	可久	花潭先生 復齋先生	崧陽書院 花谷書院			朴淳 閔純 許曄 李之菡 朴民獻	花潭集
2	金履道	金海	君吉		南山祠		朴成林		
3	林大秀	淳昌							
4	馬羲慶	木川	仲積	竹溪處士	四賢祠	徐敬德			
5	李慶昌	全義	彥及	西村處士	四賢祠			金天挺	西村集
6	金玄度	禮安	弘之	認齋先生	四賢祠	成渾	趙憲		遺稿
7	金靜厚	禮安	士畏	東籬散人			金埴		
8	尹忠甲	坡平	子蓋	遂一齋主人					
9	崔繼林	陽川	子述						
10	金斗文	金海	季章	敬勝先生 關西夫子	男山祠	尹忠甲 尹拯		張昌復	遺詩
11	張昌復	玉山	吉初	張有道	南山祠				遺稿
12	高敬恒	濟州	義仲		龍陰祠	張昌復	金時鐸 許增		
13	金時鐸	德水	子木		梨湖祠	李緯	許增 禹昌洛		義利辨
14	許增	河陽	川如		新湖祠	李緯			中庸釋疑
15	張玄聞	鎭安	濬之	四裁堂	男山祠		李春驊		
16	李春驊	延安	公翊		崧南祠				
17	趙有善	稷山	子淳	蘿山先生		金時鐸 金元行		韓敬儀 馬游 韓光鎮 金憲基 金天復 林孝憲 金聲大 任常翼	遺稿
18	韓敬儀	淸州	伯慄			趙有善			菑墅集
19	馬游	木川	稹學			趙有善 金履安			
20	韓光鎮	漢陽	顯之	琴溪處士		趙有善			
21	金憲基	熊川	稹度	堯泉先生	堯泉祠	趙有善	金尙欽 韓履源 金天復		初菴集
22	金天復	可園	淸風			金憲基			
23	任相翼	豐川	可遠			趙有善 李度中			重軒雜著
24	姜文豹	晉州	蔚叔			洪直弼			

\* 출처 : 金澤榮, 『崧陽耆舊傳』 권1, 『學行傳』.

〈Abstract〉

## The Confucian tradition of Kaeseong in the late Joseon period

Noh, KwanBum\*

This paper will examine the local tradition of neo-Confucianism in Kaeseong in the late Joseon period. Kaeseong(開城), a major city in Joseon Korea is believed to be involved with the growth of the new trend of Korean reformed Confucianism called Shilhak(實學) because it is regarded as the key commercial city with economic wealth and urban prosperity in favor of the formation of the new way of thinking in the historical transition period. However, the actual situation in academic circles of Kaeseong was characterized not so much by the growth of Shilhak as by the revival of neo-Confucianism. It was only since the 18th century that Confucian scholars turned up in Kaeseong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philosophical discourses based on traditional Confucian classics and Neo-Confucian canons. On the basis of the growing self-consciousness of the newly acquired cultural identity of Neo-Confucianism, Kaeseong intellectuals came to invent the genealogy of a new tradition of local Neo-Confucianism. It was the later-formed tradition of general Neo-Confucianism that faced the modern times in Kaeseong.

**Key Words** : Kaeseong, Confucianism, Joseon, Nakhak, locality

---

\* Assistant Professor, Hallym University.